



혼돈의 野... 질주하는 흥준표 5



고승범, 오늘 가계부채 첫 메시지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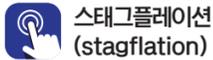
코스피(6월) 3203.33(+2.27P) 코스닥 1052.96(-0.89P)
환율(달러당 원화) 1156.50(-0.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59% (+0.022%p)

〈美·中·獨·日〉

델타 변이에 세계 4대 경제주축이 흔들린다

美 신규 고용자 수 증가세 둔화·獨 기업 신뢰지수 악화
中·日도 서비스업 부진... 주요국 경제지표 '이상 신호'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의 확산에 미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4대 세계 경제 주축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와 맞물리면서 약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경기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활동이 침체하는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관련기사 3면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종합한 JP모건 글로벌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52.6으로, 전월의 55.7에서 하락하며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이다.

미국은 지난달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했으며, 공항·호텔·레스토랑 등 도처에서 수요 둔화 징후가 나타났다.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중전의 6.5%에서 2.9%로 대폭 낮춰 잡았다. 글로벌 금융정보제공업체 레피티티브는 미국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2분기 95.6%에서 3분기에는 29.8%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모두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급랭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3000억 위안(약 53조 8860억 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 재대출 정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독일은 기업 신뢰지수가 악화하면서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경기 후퇴 위험을 언급했다.

일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적용으로 경제활동이 억제되면서 회복이 늦

어지고 있다. 지난달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9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발령을 2-3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경제활동 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러한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주요 경제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씨티그룹은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제 재개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다”며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고용지표 부진은 델타 변이와 허리케인 등 일시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수개월 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도 일부 분야의 열기가 식고 있지만, 대체적인 소비 활동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달 중순 부스터샷(추가 접종) 접종까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경제활동은 다시금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효선 기자 hsbun@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면 소비 위주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 앞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관련기사 4면

집값 10%에 10년 살고 사전확정 가격에 분양

‘누구나집’ 본궤도, 내일부터 사업자 공모

화성 능동·인천 검단 등 6곳
“성공 관건은 민간 참여 여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장기 거주한 뒤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지역 6개 시범사업을 통해 총 6075가구를 공급한다.

▶관련기사 18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

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 등이다. 총 6075가구가 공급된다.

누구나집은 소득은 안정적이나 집을 당장 살 목적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집값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에는 따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

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집은 임대기간(10년) 종료 이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과는 차별된다.

입주자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득이다. 집값 하락 시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지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자는 향후 집값 등락과 상관 없이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자칫 집값이 하락하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사업자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4년간〉

장기요양보험료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지출 효율화 나서야”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된 배경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75.9% 올랐다. 수혜 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 등 정책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했다는 게 경총의 평가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979억 원에서 2020년 7662억 원으로 61.3% 감소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

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비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낮은 보험료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2018~2020년 노인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8%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2040년 노인 인구는 2020년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화에 위해서 지출 효율화뿐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이 병행돼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부담수급 현저조 사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2035년〉

현대차 2045년 ‘탄소중립’... “유럽서 전기차만 판다”

현대자동차가 차별화한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관련기사 12면
현대차는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 보도발표회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순배출이란 전체 배출량에서 제거 또는 흡수된 양을 차감한 실질적인 배출량을 뜻한다.

‘2045년 탄소 중립’ 구상의 핵심은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 플랫폼 △그린

에너지를 축으로 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이다. 현대차는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협력사), 사업장(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75% 줄이고, 이와 더불어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도입해 2045년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40년까지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80%까지 높이고 주요 시장에서 모든 판매 차량의 전동화를 끝낸다. 택시와 차량 공유 업체 등 법인에 전기차를 대규모

공급하고, 전 세계 사업장에는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도입해 2045년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한다. 2035년까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 차종을 전동화로 전환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IAA 보도발표회에서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비전 아래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이며, 전 인류의 각별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전자, 美 텍사스에 새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

8일 市의회 세금 감면 등 안전
이재용 부회장 美 출장 임박
추석 연휴에 논의 매듭지을 듯

위치	미국 텍사스주(오스틴과 1시간 거리)
규모	480만여㎡(오스틴 부지의 4배)
생산품	시스템 반도체
고용	3000명 이상 간접고용 포함 1만 명
투자	170억 달러(약 19조 원)
인센티브	향후 10년간 약 3600억 원



삼성전자의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에 자리한 '테일러' 시(市)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재계에선 추석 연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올라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6일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의 주요 언론 등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로 텍사스주 테일러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현지매체 '테일러 프레스'에 따르면 오는 8일(현지시간) 테일러 시의회와 윌리엄스 카운티가 이와 관련한 공동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선 삼성전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장 건설 계약과 관련한 안전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들어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를 유력한 신규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로 놓고 투자 계획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 독립교육지구(ISD) 이사회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제안한 10년간 3억1400만 달러(약 36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승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오스틴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인프라를 현지에 구축했다. 테일러는 이 오스틴 공장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주 오스틴에 인접해 있다. 두 곳은 차로 1시간(약 60km) 거리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정전사태로 오스틴 공장 생산이 중단되면서 약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 신규 공장은 이 같은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투자 후보지가 확정된다면, 삼성전자는 해외 반도체 공장에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금액을 쏟아붓게 된다. 앞서 삼성전

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구축에 총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 투자 규모는 정해졌지만, 공장 건설을 위한 각 지역과의 세부 인센티브 협상이 늦어지면서 투자 확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을 방문, 반도체 공장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미국 출장을 위해 비자 신청 등의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미국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투자내용이 추석 이후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부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르게 되면 반도체 논의 외에도 기업 인수·합병(M&A)을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한 M&A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최윤호 CFO(최고재무책임자)도 실적 발표 때마다 "3년 내에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백신 관련 논의도 거론된다.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국가 경제 기여'를 주문받은 이 부회장이 미국 뉴욕 모더나 본사 등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신설

"상반기 청년창업 25만 곳 2030 눈높이 맞춤형 지원"

창업중심대학·인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붐'을 이어 가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눈높이에 맞춘 정책 지원을 위해 20~30대 청년 위주로 부서 원도 구성했다.

중기부는 6일 뜨거운 창업 열기가 '청년창업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청년들이 이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을 통해 성장해 가는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20~30대 청년 위주로 배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우리나라의 청년 스타트업 15개가 선정(4월)되는 등 세계에서 우리 청년 창업기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청년창업기업은 25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7.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창업기업 수는 상반기 기준 25만7877개 등이다.

청년정책과는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창업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기부는 먼저 청년창업 붐 확산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창업중심대학'을 연내 대학 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선정될 창업중심대학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기관 역할을 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의 개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벤처 청년 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하반기 이어간다.

청년 인재 이어드림(Year-Dream) 프로젝트는 만 29세 이하 청년(학력·전공 무관)을 스타트업·벤처의 인공 지능 개발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특화 창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등은 청년창업 현장에 맞도록 지원한다. 고종민 기자 kjm@

30대 기업 中매출, 5년 만에 꺾였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익률·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최근 5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6년 이후 중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의 실적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매출을 공시한

30대 대기업의 대(對)중국 매출은 지난해 117조1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9% 감소했다.

2018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한국산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매출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018년 대

美 무역규제·중기업 경쟁 심화 스마트폰·반도체 점유율 하락

비 29.1% 감소했다.

한국기업의 중국법인 매출과 이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을 사이에 두고 현지기업과 경쟁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한국 브랜드 승용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16년 7.7%에서 2020년(1~9월) 4.0%로 3.7%p 줄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순자산〉

“코스피 대신 글로벌 성장주” 해외주식형펀드 50兆 돌파

순자산 1년 전보다 46% 증가 펀드 수도 63개 늘어 1224개 ETF·IT 인기, 동남아펀드 선전 운용사 이어 은행 투자 유치전



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해외 펀드 판매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해외주식펀드 순자산, 50조원 돌파=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일 기준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50조309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38조5584억 원)보다 30.48%, 1년 전(34조4369억 원)보다는 46% 증가한 것이다. 펀드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해외주식 펀드 수는 총 1224개로 1년 전보다 63개 늘었다. 설정액 역시 1년 전(26조7266억 원)보다 36.3% 증가한 36조4440억 원이다.

해외 펀드의 인기는 국내 펀드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 자금 887억 원이 새로 들어왔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42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 대비된다. 최근 6개월 동안에는 해외펀드에 4조9183억 원이 유입됐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6843억 원이 유출됐다.

최근에는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주요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개별 주식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

펀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해외 ETF 103개에는 1조2092억 원이 순유입됐다. 연초 이후 순유입액이 4조4813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자금 유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주요 국가마다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IT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글로벌펀드 시장에서도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쌓인 미국주식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며 “미국주식펀드의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지난해부터 미국주식펀드 투자가 대중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수익률 1위 동남아펀드= 해외 주식펀드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2.94%로 양호한 편이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펀드는 -0.08%였다. 연초 후 수익률도 각각 11.63%, 9.06%로 앞선다. 주요국 펀드 중에선 동남아 펀드의 수익률이 20.29%로 가장 높았고 인도 펀드(17.87%), 북미

펀드(11.56%), 신흥유럽(8.08%) 순이었다.

개별 펀드에서는 아시아주식 투자 관련 상품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A-E’가 해외주식형펀드 주간 수익률 5.3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P2e’ 5.03%, ‘삼성인디아증권투자신탁2[주식](A)’ 4.69%, ‘피델리티인디아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 4.60%,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4.38% 등을 기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사는 “과거 해외부동산펀드가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기대수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일반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공모펀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최근 국면에서는 다소 낮은 변동성을 가진 해외투자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50년만에 고개드는 스태그플레이션 대규모 통화·재정 부양책도 안 먹혀

伊 “유럽 경제 회복 걸림돌” 美 ‘고용쇼크’에 경고음 커져 亞 공급망 혼란 상황 더 악화



베트남 정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하노이에서 시행 중인 봉쇄 조치를 15일 더 연장했다. 하노이/로이터연합뉴스

저성장·고물가 상황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50년 만에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적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경제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스타그플레이션’을 꼽았으며, 미국에서도 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몬티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완화적이고 막대한 통화정책과 재정부양책이 더 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며 “동시에 생산 유연성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유럽연합(EU)만의 것이 아니다”며 “많은 국가가 1970년대에 봤던 것과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일찍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올렸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닥터 돌’ 루비니 교수는 지난달 말 미국 금융시장 전문매체마켓워치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많은 선진국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대규모 통화·재정·신용 부양책에도 성장은 급격하게 더뎠다”며 “이미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 공급 충격은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생산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 같은 수요와 공급 역학의 부정적 결합은 1970년대 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고용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가팔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미국의 높은 물가 수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비농업 고용자는 전월 대비 23만5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치(0.3% 상승)의 두 배 수준인 0.56% 상승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들의 공급망 혼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정의한 39개국의 백신 접종률은 58%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접종률은 31%에 불과했다.

낮은 접종률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은 아시아 전역에서 제조, 운송 부문에 걸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공급망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질이 궁극적으로 소비 지출 지연과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닛 헨리 HSBC홀딩스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전 세계 개인 소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재화의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yun@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더 큰 미래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자원고갈, 양극화 등 지구적 난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고방식의 대전환을 이루어 '말'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희가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미래대학의 뚜렷한 지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 지속가능한 '문화세계'를 열어 나갈 경희의 신실 학과

경희대학교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 과학		
빅데이터융합학과 <small>경영·AI·빅데이터 융합</small>	인공지능학과 <small>Humanover AI 인재</small>	스마트팜학과 <small>원예생명공학·ICT 융합</small>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보다 먼저 오는 미래	
미래인간과학스쿨 <small>빅히스토리과 기후변화</small>	IT-디자인융합학부 <small>공학·예술·디자인융합</small>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2021.9.10(금) 10:00 ~ 2021.9.13(월) 18:00
입학정보: iphak.khu.ac.kr 입학상담: 1544-2828
원서접수: www.uwayapply.com

온라인 기능 강화 KHU:ON 입학처: 비대면 상담과 지능형 검색, 영상 콘텐츠 강화로 수험생 정보 불균형 해소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022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2021.12.01(수) ~
입학상담: 02)959-0000 / khcu.ac.kr/ipsi

2022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예정): 2021.11.08(월) ~
입학상담: 02)3299-8808 / grad.khcu.ac.kr

'백신 인센티브' 효과 기대 속 '감염 불감증' 확산 우려

'위드 코로나' 실험 시작

6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 실험이 시작됐다. 점진적인 모임·활동 재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조치 완화 때마다 번지는 '감염 불감증'은 위험요인이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자칫 모든 모임·활동 재개 신호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기준 사적모임 집계인원 제외대상은 전 국민의 22.5%에 불과하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6월에도 인센티브가 제한적으로 시행됐으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미접종자가 접종자임을 주장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갖는 사례가 속출했다. 접종 여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전자출입명부가 없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일일이 방문자들의 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접종 완료자들의 모임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백신 인센티브를 미적용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4차 유행기에 진입했다. 연일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철회했다.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6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김기남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 유행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허용 모든 활동 재개 신호로 읽힐 우려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도 변수로 文 "진정되면 새 방역체계 전환"

동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효과도 변수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백신 인센티브 확대와 시너지를 낸다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면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져 모임·활동이 위축되거나 국민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해 지급액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증가 효과는 투입된 재정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마저 필수재 소비에 쏠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업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자영업)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6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공급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 늘고 백신 접종률 높아지며 고용 개선세

제조업·공공행정 등 종사자 ↑

올해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83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 4000명(1.5%)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 충격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예상을 비껴 간 것이다.

물론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업(-6만 4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1만 3000명) 등은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종사자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이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의 종사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 갔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1만 9000명)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공공행정(+4만 7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 5000명) 등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전체 종사자 수가 개선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업종의 고용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나타난 지난해 때와는 대조를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36만 3000명 줄었다. 이를 기점으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반영된 지난해 12월에는 종사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43만 명)로 폭 떨어졌다.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고용 통계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용 충격이 가늠될 수 있지만 충격파가 미미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나타나면 고용 충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고용 충격파가 심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확산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시장 적응력이 강화되면서 종전과 같은 고용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 일상생활에 숨통이 트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도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중부세 절세법 ||

1주택 부부공동명의 →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가능

공동 12억·단독 11억 공제 16일부터 첫 변경 신청 진행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중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중부세법 제 10조제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중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주택별 중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세법 개

연령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현행	2021년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20%	50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30%	10이상 15년 미만	30%
만 70세 이상	30%	40%	15이상	40%
공제 합산 한도				
	현행 공제율		2021년 공제율	
	70%		80%	

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중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게 30% △만 70세 이상에

게 40%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한 구조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의 나이와 주택보유 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집 살때 공동, 보유 길수록 단독 유리

명의는 어떻게?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현행 중부세법은 단독명의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게 30% △만 70세 이상에게 40%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에서 빼준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중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중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기간 공제 40%를 적용받은 결과다.

공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아내가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중부세로 낸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남편(30%)을 납세의무자로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3만 원을 덜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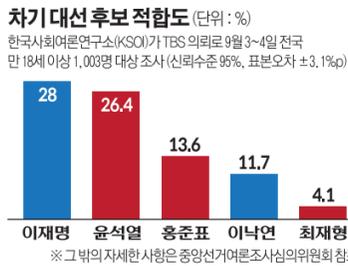
반면 단독명의로 60세 미만이 공시가 14억 원(시가 20억 원 안팎)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한 경우 올해 중부세로 123만 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 자라면 둘이 합쳐 65만 원만 낸다.

세무업계에선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으로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꼽고 있다. 60%를 공제받는 시점을 기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할 때 절세 효과가 크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홍준표 향하는 野 지지층, 윤석열과 양강 구도

범보수 후보군 여론 조사서
1위 윤석열 1.9%p 차 추격
여야 전체 이낙연 제치고 3위
2030 “무조건 野 후보는 洪”
웹커뮤니티서 #무야홍 유행



국민의힘 대권 구도가 혼전 양상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윤석열 예비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휘청이는 사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홍준표 예비후보가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캠프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약재로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까지 홍 후보에게 몰려가며 야권 대선 판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홍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를 앞서거나 턱 밑까지 추격했다. 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공개한 여론조사(3~4일 유권자 1003명 대상,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중 범 보수권 후보군에선 윤 후보가 28.2%, 홍 후보가 26.3%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나타냈다. 전체 후보 조사에서도 13.6%를 기록하며 11.7%를 얻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점을 펼쳤다. 전날 알앤씨지가 공개한 조사에서도 홍 후보가 32.5%로, 29.1%를 기록한 윤 후보와 범 보수권에서

접점을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홍 후보와 20%p 가까이 차이가 났던 윤 후보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앞서 윤 후보가 김용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선 윤 후보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공작을) 상시해 오던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의 공세라고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야권도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 경험이 있고 각종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홍 후보에게 쉽게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올라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언제 막말을 다시 하고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홍준표 대세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20·30대를 기반으로 지지율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오른쪽) 의원이 6일 강원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높이고 있는 홍 후보가 오히려 60대 이상의 지지층에서만 인기가 많은 윤 후보보다 확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무야홍(무조건 야권 대선 후보는 홍준표)’이라는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의 표

심이 홍 후보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윤 후보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정통보수를 내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홍 후보 쪽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홍준표라는 대체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참석자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캠프 본선 준비 착수

네거티브 최소화·후보들 ‘원팀’ 모색
이낙연 일정 취소, 향후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벌써부터 대세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권에서 과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은 본선 대비에 착수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재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는 경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본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본선 리스크’ 최소화가 그것이다. 이 지사가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네거티브나 공약 비판은 본선에서 야권이 이용하는 소재로 작용하는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경선 결과로) 네거티브가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입증됐다”며 “다른 후보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게 우리 당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론

인사 고발 사주 의혹 공동대응 제안을 고리로 경쟁 후보들과의 ‘원팀’도 추진하고 있다. 캠프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공동대응 제안에 아직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노력할 것이다. 공동대응을 전제로 윤 전 총장 이슈 대응을 고민했지, 독자적 차원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론 정책 경쟁을 추구한다지만, 경선에서 공약 비판이 너무 거세지면 본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 조절’에도 나선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많은 공약이 준비돼 있지만 경선에서 너무 많이 풀면 비판이 쌓여 본선에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자원조달책 등 중요한 부분은 아껴두는 등 ‘양 조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이날 공개일정 중 금융노동조합 간담회 외에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든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 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친문의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이 충청권 경선 결과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서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네거티브가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참다한 홍삼.

홍삼은 섭취보다 흡수가 중요합니다.

컴파운드K 고품질 홍삼농축액과 통째로 갈아 만든 초미세분말로 홍삼의 흡수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컴파운드K 함량 40mg

※ 3일 권장섭취량 (1회/50ml당 Compound K 40mg 함유)

T. 1661-0308
www.chamdahan.com

참다한 홍삼은 전국 180개 직/가맹점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與 “윤석열의 총선 개입” 野 “허접한 기사로 정치쇼”

국회 법사위 ‘고발사주 의혹’ 충돌 김웅 “오래돼 기억 안 난다” 입장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옹호에 나섰다. 고발 사주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실체가 없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 초반 여야 위원들은 현안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료 요청과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 매체 뉴스버스의 실체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후 공방 끝에 현안 질의를 시작하자 여야는 고발 사주의 실체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단순하게 그냥 고발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선거 개입, 그리고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쇼를 하기 위해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을 이용하는 데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사주, 공작, 청부 이러한 음흉한 단어들은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니냐”고 비꼬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 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과정에서 고발장을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게 돼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길지 결정하게 됐다.

박준상 기자 jooon@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회동 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홍남기 “재정 확장 불가피 내후년 이후 정상화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 기조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정건정성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 증가세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원이지만 지난해 경기재정계획을 국회 제출했을 때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원으로 어차피 내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부 다른 조치 때문에 (국가채무 1000조 원을) 넘은 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추경하고 재정 확장 기조로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 절반도 안 돼 양호하다는 게 신용평가 3사의 일치된 평가”라며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신용평가사도 인식하고 있지만, 선진국보다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 제어를 위해 노력하는 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곳간에 곡식을 쌓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 있느냐”고 되물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답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민주당 인산인해 경선은 무죄? 민노총 위원장 구속 철회하라”

정의당, 송영길 대표 오늘 고발

정의당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철회되지 않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신언직 정의당 사무총장은 “송영길

대표와 김창룡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7일 고발할 계획”이라며 “안전 및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진행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 지침을 어긴 민주당 송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 대표는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나 이 코로나 시국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잔인한 사회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회의에서 “민

주당의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는 무죄인가”라며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노총은 사람을 모아서 집회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충분한 권고와 함께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광장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모인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7일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집회사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 STORY 습관의 물리학

- PART 1 좋은 관계 맺는 습관
- PART 2 고전 속 인물의 인종萬里
- PART 3 습관에 대한 단상
- PART 4 뉴노멀 시대의 SNS 습관
- PART 5 MZ세대에게 배우는 리추얼
- PART 6 미국 시니어의 웰에이징 습관

신라보가 만난 사람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초빙교수 최광진
본질의 아름다움



생활 속 법률 상식
연금부자로 가는
지름길, TDF
구해직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만 알고 하자

느린 여행 잡조름한 갯내음, 시흥 갯골생태공원



전통 정원의 멋
담양 명옥헌



산악인 박경이
경이로운 과정의美

참 좋은 시절
국가 위상과
국민 일상을 짓는
건축계의 거장
'류춘수'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물의 정원 건너 그림 속으로



습기로운 투자생활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 가이드



Life is Good!을 위한 젊은 도전

즐거운 상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꼭 막힌 도시,
시원하게 열어줄래!”**

AI로 교통체증 없이 원활한
세종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LG CNS 박수경

**“신약 개발 속도,
AI로 확 올려볼까?”**

딥러닝 기술로
신약개발 속도를 앞당기는
LG AI연구원 Rodrigo Hormazabal

**“지금 이 분위기
빵 터지게 해보자!”**

AI로 취향을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 장하진



국민지원금에 한우 값도 들썩... 겁나는 밥상물가

농촌경제연, 한우 도축 증가에도 도매가격 상승 전망 삼겹살, 10월부터 하락... 공급과잉 닭고기 약세 지속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한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으로 서민 생활고는 덜겠지만, 가격이나 크게 오른 밥상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축산관측 9월호'를 보면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약 10%, 평년보다 약 7% 증가하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은 전년·평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지속과 6일부터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추가 가격 상승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기준 국거리용으로 주로 쓰이는 한우 양식 1+등급 1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8420원으로 1년 전의 7910원보다 6.5% 상승했다.

다만 연구원은 추석 이후부터 수요 감소

와 도축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돼 성수기에 출하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올해 9월 340만 마리를 초과하고 2023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축 마릿수도 2024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사육·도축 마릿수 증가에도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잠정적으로 심각한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신규입식 자제와 조기 출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삼겹살(국산냉장) 기준 1년 전과 비교해 16.8% 오른 돼지도 10월부터는 도축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수요가 많은 추석 기간 중 조기 출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계도 8월부터 이어진 닭고기 공급과잉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12월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과일과 축산물, 계란 등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6일 차레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21% 저렴한 22만4181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재래시장 모습. 연합뉴스

는 2~4월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병아리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9월 이후 닭고기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계 가격은 3일 기준 5213원으로 전년보다 4.1% 정도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당시처럼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나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 0.7%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준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포털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해 4~6월 외식 물가는 평균 1.3% 올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 보면 추석 전까지는 물가가 떨어졌다가 추석 즈음에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올해 7월에 이미 2.6% 상승했다"며 "비축물 등 공급 측 요인은 사실상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하반기에는 11월 쯤 집단면역과 맞물리면서 수요 측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SRT 오늘부터 3일간 추석 승차권 예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00% 비대면(온라인·전화접수)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2일까지 운행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 6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매표소에 명절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ESG 법안, 지원책보다 처벌 조항 11배 많아

처벌·규제 196개, 지원 18개뿐 전경련 "획일적 규제 지양해야"

21대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97개 대부분이 규제와 처벌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 신설·강화 130개(53.3%)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부조항 30개(12.3%) 등이다. 규제와 처벌(196개)이 지원(18개)보다 11

배 많았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 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유한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경향이어서 세계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저탄소화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 5개 단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4법'이라 불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발의된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법안 통과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ESG 경영이 강요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G20 정상 '디지털세' 합의 땀 수출기업 해외 稅 부담 커질 듯

빅테크, 매출 거둔 나라에 납부 상의 "삼성 등 제조기업도 영향"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진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우리 수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에 IT 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며 많은 기업이 추가적인 해외 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한국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세계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로, 필라1과 필라2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법인세를

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 원 및 세전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개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 원 이상'으로 낮아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은 다음달 최종 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 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

〈8만개〉
상위 10% 기업, 법인세 '96%' 52조

상위 0.1% 대기업 33조 부담

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 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 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의 35.6%를 올리고 전체 법인세의 60.9%를 부담한 셈이다.

특히, 소득 상위 10%로 범위를 넓혀 보면 법인 8만 3800개가 3640조 8974억 원 수입을 올려 전체 법인 수입 중 69.1%를 기록하고, 51조 5013억 원 세금을 부담해 전체 법인 세금 중 9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0.1% 법인 수입금액이 전체 법인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41.5%)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35.6%로 하락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 법인 총부담세액이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61.6%) 이후 상승하다가 2020년 60.9%로 소폭 줄었다.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 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에너지전환·신산업 육성 내년 4.9조로 예산 증액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일 "2022년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정부안)을 전년 대비 2.7%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혁신기업인 스탠다드 에너지를 방문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신사업모델 창출·육성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4조7422억 원에서 내년 4조8721억 원으로 증액했다.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도 1조1328억 원에서 1조2453억 원으로 늘렸다.

또 그는 "민간 투자 촉진 및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에너지혁신기업·벤처캐피탈·대기업·공기업 간 민간협업체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혁신기술 확보 시 무한한 시장점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에너지·탄소중립 R&D 전략 수립(11월 발표 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글로벌 M&A 규모 4조 달러 '사상 최대치' 근접

올여름 공격적 인수합병 기업 늘어 IT중심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 주간사 글로벌 IB도 '쏟아진 수익'

이번 여름 공격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선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올 한해 전 세계 인수합병(M&A)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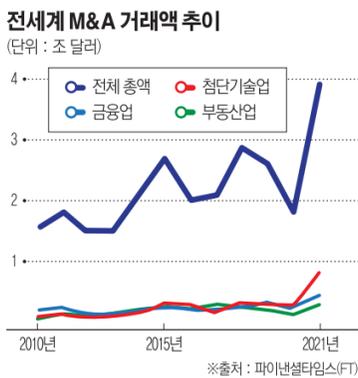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정보업체 레피티비가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합의된 M&A 규모가 금요일 기준 3조 9000억 달러(약 4514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전인 2019년 성적(2조6000억 달러)을 웃도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M&A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 4조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수로 따지면 4만 건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 거래 규모가 수백억 달러 대라고 FT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300억 달러 규모 항공기리스 사업부 매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 여름 기업들의 M&A 활동이 두드러진 것이 시장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8월은 M&A 시장의 비수기로 통하는데, 올해 8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90억 달러),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2750억 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은 상황에 실적 호조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M&A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펌 셉리번앤드크롬웰의 프랭크 아펠라 M&A 글로벌 대표는 "대



부분 기업이 역대급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다. 여기에 주가도 높아 향후 6~12개월 사이 M&A 활동이 둔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 부문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레피티비에 따르면 올해 전체 M&A 중 21%가 기술 업종에서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16%)보다 더 확대된 것은 물론 2000년 닷컴버블 이후 가장 큰 비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8742건에 8320억 달러 규모의 M&A 거래가 진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10억 달러에서 2배 넘게 폭증 성장한 것이다.

기술업종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M&A는 PC 제조업체로 유명한 델의 자회사 VM웨어 분사(520억 달러)였다.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서비스업체 그랩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400억 달러)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음성인식 기술업체 뉴앙스 인수 결정(160억 달러)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기업들의 M&A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간사 역할을 한 월가 투자은행(IB)들의 수익도 증가했다.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최근 2분기 글로벌 IB 부문 수수료 수입이 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골드만삭스의 수수료 수입도 33% 이상 늘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니 군부 쿠데타 '대통령 역류'

5일(현지시간) 서아프리카 기니 수도 코나크리에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의 거리 행진에 환호하고 있다. 이날 정예 특수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알파 콩데 대통령을 역류했다. 기니는 지난해 10월 선거 부정 의혹과 폭력 사태로 얼룩진 대선을 치렀다. 콩데는 논란 끝에 3선에 성공했지만 정국 혼란이 계속됐다.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주요 생산국 기니의 쿠데타 소식에 영국 런던시장에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은 10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코나크리/로이터연합뉴스

기후변화에 농업 타격...신흥국 총 125조 피해

상반기 세계 자연재해 보험 지급액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고, 태풍·폭우 추가피해 예고

폭염과 한파,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전 세계 농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신흥국에서만 연간 12조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인용해 2008~2018년 사이 재해로 인한 신흥국 농축산업의 경제적 손실은 1080억 달러(약 125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연간으로는 12조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규모다.

보험재계업체 이온그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로 인한 전 세계 농축산업 보험 지급액은 4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이대로라면 연간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2년과 2015년을 웃돌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올해 들어 기후변화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확산하고 있다. 2월 미국 남부 예전 100년 만의 한파로 채소와 과일 농가가 피해를 봤고 5월 인도에선 1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이클론이 발생해 극심한 작물 피해를 봤다. 하반기 들어서도

재해로 인한 전세계 보험금 지급액 추이 (단위: 억 달러) ※2021년은 상반기 기준



7월 브라질 남부 지역이 기록적인 한파를 겪는 등 농업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가 하반기 여름철을 보내면서 태풍과 폭우를 중심으로 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태풍 피해액은 920억 달러로 2000년부터 20년간의 평균치를 30% 웃돌았는데 올해 이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내 농림수산 관련 피해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7~8월 전국에서

기록적인 호우와 이상 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대비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콜드체인을 비롯한 공급망 강화도 모색 중이다.

최근엔 향후 2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마스토미 유지 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쌀 재배 간 관계를 추산해보면 2010년 대비 2040년대에 기온이 2.7도 상승하면 불량 쌀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나올 것이고 쌀 출하 감소로 일본은 연간 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만큼 전 세계 식품 가격이 계속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4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3% 급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백신부족 공여책 "접종용량 줄여라"

"충분한 근거 없지만 공중위생상 유익 가능성" WHO 연구 장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공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1회 접종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접종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관련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고 6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여러 가지 용량을 시험하고, 면역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표준용량을 결정한다. 그러나 용량을 줄여도 면역반응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 절반의 용량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면 접종 횟수는 2배로 늘어나 백신 공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표준용량의 절반을 2회 접종하는 방법으로도 항체가 생기는 반응 강도는 동일한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라호야면역학 연구소는 지난 7월 "전문가 검증받기 전의 소규모 연구이기도 하지만, 표준의 4분의 1분량을 2회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은 정도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1차 접종에서 표준의 약 절반을, 그리고 2차 접종 때 표준 용량을 각각 접종했을 때, 표준 2회 분량과 같은 정도의 면역반응이 일어났고 90%의 발병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용량을 줄였을 경우 등의 효과나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5월부터 벨기에에서 이뤄지고 있다. 닛케이는 "모더나 백신은 1인당 용량을 절반 이하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 4분의 3으로 절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용량 접종의 과학적 근거는 아직 제한돼있기는 하지만, 백신 공급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WHO는 지난달 10일 이와 관련해 "권장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지만, 공중위생상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며 "표준 용량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가를 분명히 하는 연구를 장려한다"는 임시 성명을 냈다.

세계는 이미 과거 적은 양을 접종해 백신 공급 부족에 대응했던 선례가 있다. 아프리카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황열병 유행으로 백신이 부족했던 지난 2016년 수백만 명이 표준량의 5분의 1분량으로 백신을 접종했다. WHO가 추천한 방법이었다. 소아마비, 광견병 등의 백신도 분량을 줄이는 실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격차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 옥스퍼드 통계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비율이 5%대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들은 부스터샷(3차 접종)에 나서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폭스바겐, 2025년 독자 로보택시 시동

디스 CEO "자율주행차가 게임체인저" ID버즈 차량 100대 투입 예정

폭스바겐이 2025년 독일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다. 회사는 향후 자동차 업체를 뒤바꿀 제품으로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를 꼽으며 관련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6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독일 뮌헨 국제모토쇼 전야제에서 발표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자율주행만큼 자동차 업체를 바꿀 것은 없다"며 "폭스바겐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축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사업체로의 변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5년 내연기관 엔진 차량 사업이 끝날 위기에 직면한 유럽 자동차 산업에서 실질적인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폭스바겐 사업의 약 85%는 자가용과 개인 소유의 공유 렌터카가 될 것이고 15%는 차량 서비스를 위한 셔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스타트업 아르코AI와 공동 개발한 차량 100대를 독일에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르코AI는 지난해 폭스바겐과 미국 포드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폭스바겐은 이 회사에 26억 달러(약 3조 원)를 출자했다. 현재 아르코AI는 유럽 본사가 위치한 뮌헨 외곽 지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로보택시 사업에는 '폭스바겐 버스'로 알려진 미니밴을 전기차로 탈바꿈한 ID버즈가 활용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2017년 ID버즈를 콘셉트카로 처음 대중에 선보인 후 아르코AI와 함께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차기 사업에 투입될 차량은 특정



폭스바겐이 2017년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서 콘셉트카 ID버즈를 공개했다. 프랑크푸르트/AP뉴스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가 대상이 된다. 차량에는 다른 차량과 장애물 등을 판별하기 위한 여러 카메라와 레이더, 고성능의 라이더 센서가 탑재된다. 차량 전장에 탑재되는 아르코AI의 센서는 400m 앞 물체도 감지할 수 있다.

폭스바겐의 크리스티안 쟈거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는 "차량 전체에 분산된 6개의 레이더와 14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인식 시스템은 운전자가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내부통제 필요성이 강조되자 금융권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위해 회사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결함 문제를 금융사 자체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발전방안을 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에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 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내부통제를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해 결함을 발견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 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 지적 일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모여 제도 발전안 공동 마련 “내부통제는 자율규제… 임직원 징계·과징금 감경해줘야”

또 이사회에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에 공시할 계획도 발전 방안안에 담았다. 금융권은 내부통제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담당 임원 간 내부통제 관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실적을 중시하는 영업 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하지 않도록 고객 수익률과 같은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KPI)에 반영한다.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KPI에서 제외

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문제는 협회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마련을 내세워 징계 인센티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융당국에 현행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 제시와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제안했다. 원칙 중심의 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되레

그러면서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했다.

6개 협회는 국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 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내용과 제재 사유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의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 협회는 ‘실효성’, ‘충실한’ 등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나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최적

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전방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 경영 및 국민 신뢰회복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흥익대학교 교수는 “이사회가 회사 또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며 “(협회에 징계권을 맡겨달라는 건) 금융 규제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지웅 상명대학교 교수는 “CEO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는 (협회의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내부 규정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교통 정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요구는 적절한 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외 건의한 내용들 역시 적정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주주간 분쟁서 승소

ICC ‘풋매수·이자지급 의무 없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에피네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과 에피네티컨소시엄(에피네티에쿼티 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이 에피네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에피네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 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것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

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에피네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에피네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피네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에피네티 컨소시엄이 ICC에 중재 신청을 하면서 진행

됐다. 에피네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는 주당 24만5000원으로 총 1조2054억 원이었다.

당시 신 회장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IPO가 이뤄지지 않을 시 풋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2018년 10월 에피네티 측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한편, 에피네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 다가오는데

소비자 보호 ‘업권법’은 언제쯤

자체 내규 도입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어… 당국 규제도 한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신고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도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원화 결제가 중단되거나 폐업하는 거래소가 나타날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도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자체 내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권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거래소 양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고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 수행을 권고했다. 특금법 도입으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원화 결제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ISMS 인증을 받은 20여 개의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신고할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중 신고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가 다수이지만, 원화 결제를 제거하고 최종 신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업을 종료할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거래소는 이후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코인마켓만 운영할 사업자도 원화 마켓을 24일에 끝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신고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강제되는 시안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문의 성격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거래소가 내규로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의 권고 사항”이라며 “거래소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가상자산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지만, 거래소에 딱히 권고 이외의 방식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권고 사항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신고 접수율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 35곳을 대상으로만 한정할 이이다. 실제로 폐업하더라도 가상자산 환급은 해당 거래소 양심에 기대야 한다. 박찬산 기자 jinsan@

고승범, 금융현안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금융위원장〉

오늘 금융정책 세미나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선다. 통화정책과 가계부채를 다루는 세미나에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금융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관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 포함)’ 세미나 참석한다. 관계부처 수장들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다. 고 위원장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았다. 공식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만큼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통화정책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에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자산가격이 상승이 이어지자 금융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고 위원장은 한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취임 전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금통위 금리 인상 결정에



취임 전 “금리인상 결정 지지” 관례 깬 ‘통화정책’ 소신발언 가계부채 관련 발언 가능성도 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

대해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금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의 인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역대 금융위원장과는 다른 행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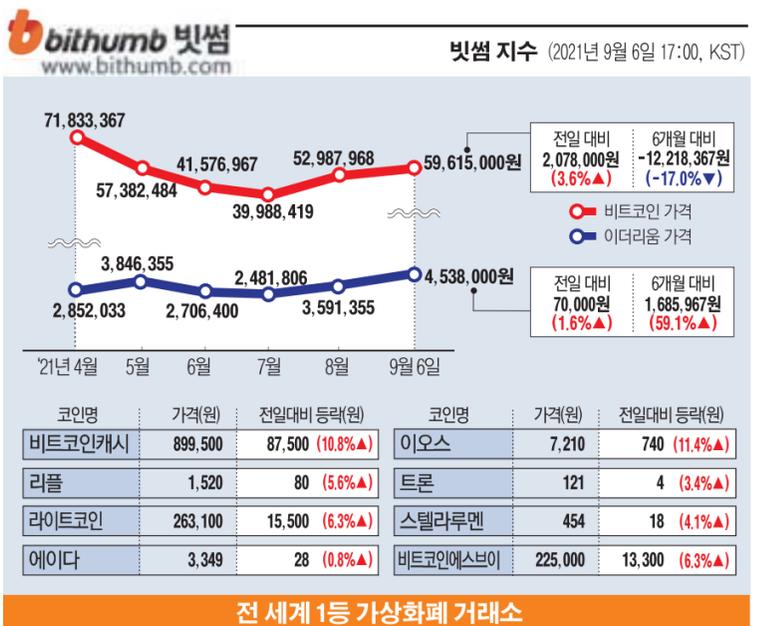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원장은 금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관례”라면서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소신 발언은 한국은행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와 한은이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은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통화정책에 대해 이날 고 위원장이 추가로 자식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냉랭했던 금융위와 한은의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임인 은성수 위원장 재임 시절 한국은행과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 은 위원장은 임기 말,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관계 개선을 예고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세미나 직후 고 위원장은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취임 인사 자리지만,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황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 등 현안을 논의한다. 공식 만남 전 금융권에 사전준비 차원의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갤Z’ 흥행 돌풍에 출하 늘리고 ‘갤S21 FE’ 줄인다

폴더블폰, 작년비 출하량 3배 수준 늘려 올해 700만대 이상 전망
갤S21 FE, 반도체 대란에 1000만대 초반 수정... 출시 연기설도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가 엇갈리며 대폭 수정되고 있다. ‘갤럭시Z’ 시리즈의 예상 밖 흥행으로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는 높아졌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갤럭시S21 FE’ 모델의 전망치는 낮아졌다.

6일 해외 IT 전문매체 샘모바일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S21 FE(팬에디션)’ 모델의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1000만 대 중반에서 1000만 대 초반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갤럭시S21 FE는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해 8월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양산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IT팁스터(tipster, 신제품 정보를 미리 알아내 공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등은 갤럭시S21 FE 모델이 오는 8일께 공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급 이슈를 이유로 10월 말 출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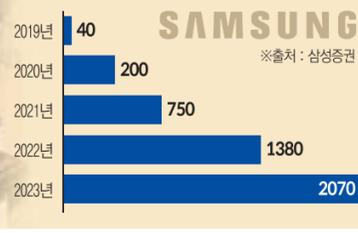
갤럭시S21 FE 모델은 기존 사용자들이 만족한 주요 기능들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춰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다.

반면, 예상을 뛰어넘으며 선전하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출하량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됐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삼성전자가 올해 700만 대 이상의 폴더블폰을 출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50만 대가 판매된 작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량을 올해 650만 대, 내년 1300만 대로 예상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작년 말에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을 280만 대로 예상했다가 900만 대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갤럭시Z 시리즈는 국내에서만 사전 예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단위: 만 대)



약 92만 대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갤럭시노트20 대비 약 1.3배, 갤럭시S21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돌풍이 거세다. 미국에서는 사전예약 물량이 2세대 폴더블폰의 올 1~7월 판매량을 넘어섰고, 인도에서는 사전 예약 첫날에만 갤럭시노트20 대비 2.7배 많은 예약 물량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 대기자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국 인기 라이브방송에서는 갤럭시Z플립3 3000대가 방송 시작 3분 만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갤럭시S21

FE 출시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높고 인기를 끌고 있는 폴더블폰 판매 확대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당분간 ‘갤럭시A52s’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방수·방진, 120Hz 화면 주사율의 디스플레이, 대용량 배터리 등 갤럭시의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50만 원대의 가성비 스마트폰 갤럭시A52s를 이달 초 출시했다. 이어 다음 달 갤럭시S21 FE가 본격 출시되면서 준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 방어

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말과 4분기 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달 중순 신형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고, 이달 말 공식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기준으로 압도적인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충성 고객층을 기반으로 얼마나 외연을 넓혀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화웨이의 반자리를 채우며 출하량 기준으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오른 샤오미의 성적표도 관심이다. 샤오미는 6월 기준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반쪽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주요 중저가 제품군이 모두 등장하는 9~10월이 올해 샤오미와 삼성전자의 승부를 가를 ‘디데이(D-day)’가 될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코로나19 델타변이가 확산하고, 반도체 등의 스마트폰 부품 부족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출시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13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며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기아 ‘The 2022 스틱어’ 출시 기아가 6일 ‘2022 스틱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The 2022 스틱어’는 지난해 8월 출시한 스틱어 마이스터의 연식변경 모델이다. The 2022 스틱어의 판매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플래티넘 3878만 원 △마스터스 4275만 원 △아크로 에디션 4388만 원, 3.3 가솔린 터보 △GT 4678만 원 △아크로 에디션 4756만 원이다. 사진은 ‘The 2022 스틱어’ 애스쿠트 그린과 아크로 에디션 실내 모습(왼쪽 네모박스). 사진제공 기아

한화종합화학의 새 간판 ‘한화임팩트’

‘지속가능 미래 선도’ 비전 담아

한화종합화학은 6일 사명을 ‘한화임팩트’ (Hanwha Impact)로 바꿨다. 새 사명 한화임팩트에는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겠다’라는 비전이 담겼다.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전략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한화임팩트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와 차세대 모빌리티 △인류의 건강과 기

아의 종식을 위한 바이오와 IT 기술 융합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 저장기술 등 인류와 사회, 그리고 지구환경을 이롭게 하는 미래 혁신 기술과 회사를 발굴하고 투자해왔다. 김희철 한화임팩트대표는 “한화임팩트는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을 선도하고 기존 전통산업의 틀을 깨는 혁신 활동과 새로운 기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HMM “신선화물 우수 선점” 냉장 컨테이너 2300대 확보

영하 30도 이하로 설정 가능
약품 등 운송 경쟁력 강화

HMM이 신선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2300대의 냉장 컨테이너를 확보했다. 일반 컨테이너보다 운임이 비싼 신선화물 운송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다.

적극적인 투자로 HMM은 올해 하반기 실적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HMM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신조 리퍼 컨테이너 2300대를 확보했다. HMM은 신조 리퍼 컨테이너를 이달까지 현장에 전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리퍼 컨테이너는 냉동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이다. 온도를 영하 30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어 과일, 어류 등 식료품 뿐만 아니라 약품까지 실을 수 있다. HMM이 보유한 일부 리퍼 컨테이

너에는 CA(컨테이너 내부 공기의 기체 함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CA를 갖춘 컨테이너는 일반 냉장 컨테이너보다 과채류 품질 유지 기간이 최대 3배 길다.

리퍼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럼에도 HMM이 리퍼 컨테이너를 대량 구매하는 것은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냉장·냉동 화물 운임은 컨테이너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HMM은 리퍼 컨테이너를 활용해 신선화물 운송을 늘린다.

올해 7월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HMM은 농수산물 기업 전용 선박을 월 265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제공한다.

신선화물 운송을 바탕으로 HMM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간다. HMM은 올해 2분기(1조3889억 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의 친환경 수소기술, 킨텍스에 총집결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 3곳
‘2021 수소모빌리티+쇼’ 참가

두산은 8~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제품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전시는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 인프라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140여 개 유관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두산 퓨얼셀파워BU를 비롯해 두산퓨얼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 등 3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두산은 수소,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하

는 트라이젠과 발전·건물·주택용 연료전지, 수소드론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선보인다.

(주)두산 퓨얼셀파워BU는 10kW(킬로와트) 건물용, 1kW 주택용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를 전시한다. 두산퓨얼셀은 내년 초 실증에 들어가는 트라이젠도 소개한다. 트라이젠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개발 중인 제품이다.

DMI는 내구성, 방수성을 개선한 DS30W 수소드론을 소개한다. 이 제품은 방수·방진에 관한 IP43 등급을 획득해 낚시와 분진 등 험한 환경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비행거리도 평균 45Km에서 60Km까지 증가하는 등 성능이 대폭 개선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X하우시스, 한샘 인수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타진

LX하우시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IMM 프라이빗에쿼티(주) 한샘 인수를 위해 설립 예정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3000억 원을 출자해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를 타진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인수 주체인 IMM 측에서 조만간 한샘 공동 인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최종 출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LX하우시스는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토털 인테리어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포스코인터, 북미서 1450억 규모 전기차 부품 수주

34만대 분량 ‘하프 샤프트’ 공급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미에서 전기차 핵심부품 대량 수주에 성공했다.

6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래AMS’와 함께 북미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으로부터 전기차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급할 물량은 전기차 약 34만 대 분량의 ‘하프 샤프트(Half shaft)’다. 금액만 약 145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처음 계약한 2만 대 분량을 포함, 총 36만 대 분량의 하프 샤프트를 세부 조정과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하프 샤프트란 전기차(BEV)에 쓰이는 구동축 가운데 하나다. 구동 모터의 회전 운동은 감속기(변속기)를 거쳐 굴림 바퀴에 전달된다. 샤프트는 이 회전을 전달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키운 ‘봉형 강관’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동 고객사의 주력 전기차 제조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확대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현지화나 투자 등 사업 확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2040년까지 전동화 모델 비중 80% 달성”

수소 전기차 RV 제품군 3종으로 확대·대형 SUV 모델 출시 검토
전기차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공개... 자율주행 ‘레벨 4’ 인증
그린수소 생산 협력망 구축·에너지 기술 장기 투자·상용화 박차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별로는 2035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 모델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구성하고, 2040년까지 기타 주요 시장에서도 차례로 모든 판매 차량의 전동화를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발표한 일정은 2040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전 제품군 전동화를 추진한다는 현대차의 기존 계획을 더욱 앞당기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30년까지 전 모델을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제네시스도 현대차의 완전 전동화 추진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RV 제품군을 현재 1종에서 3종으로 확대한다. 2023

년 하반기 △넥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다목적 차량(MPV) 스타리아급 파생 수소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후 2025년 이후에는 △대형 SUV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이다.

◇로보택시, 지속 가능 교통망 구축=현대차는 이날 전용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모셔널(Motional)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실물을 일방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인증받았다.

현대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합한 로보택시를 탄소 중립 비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대표적인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도시 환경적 관점에서 로보택시는 에너



현대자동차가 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AA 모빌리티 2021’에 참가했다. 현대차는 향후 출시할 두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의 컨셉트카인 ‘프로페시(Prophecy)’를 전시하는 등 전동화 차량 중심의 클린 모빌리티 솔루션을 소개했다.

지를 덜 소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로보택시와 같은 플릿(Fleet) 차량의 전동화 전환은 개인이 전기를 구매하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더 빠르고 꾸준히 줄일 수 있어 중요

하다. 플릿은 정부, 차량 공유 업체, 렌터카 회사 등 법인에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하는 차량을 뜻한다.

◇전 세계 사업장 탄소배출 제로화=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 번째 축은 ‘그린 에너지’다. 현대차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을 본격화한다.

전 세계에 있는 현대차 사업장의 전력 수요 90% 이상을 2040년까지, 100%를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킨다는 목표다. 이 중 체코 공장은 가장 먼저 2022년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그린 수소’ 생산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향후 사업장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솔루션은 V2G(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 저장장치(SLBESS) 등 에너지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와 상용화도 포함한다.

V2G는 전기를 전력과 연결해 유휴 전력을 상호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이며, SLBESS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블랙시(BLACK SEA) 운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운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운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운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BLACK SEA G9027 S-BKT-MB

삼성·SK, 반도체 인재 공격 채용

삼성전자, 27일까지 경력직 공개
SK하이닉스도 올 네자리수 총원
“피크 아웃” 우려에도 인재 필요”

반도체 업계가 ‘조격자 확대’를 위한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사업부는 이달 3일부터 학사학위 보유자 가운데 4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상자를 중심으로 경력직 공개 채용에 나섰다.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석사학위 보유자나 반도체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도 지원할 수 있다.

업계에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호황에 따른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고도화를 위해 공격적인 채용 기조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메모리 반도체 ‘피크 아웃’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우려 등 업황에 대한 금부정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꾸준한 채용 증가세는 업계가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선 일부 제품의 일시적인 가격 조정과는 상관없이 꾸준한 인재 충원이 필요하다”라며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이나 성장률 면에서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출

소 이후 3년간 240조 원, 4만 명 고용이라는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반도체는 해당 투자금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쏟아질 사업 영역이다. 메모리 분야에서 기술 절대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설과 첨단기술 개발, 이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수다.

메모리 사업에선 미국 마이크론 등의 D램 기술개발 추격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에선 인텔과 TSMC가 최대 금액을 쏟아부으며 신규 공장 증설에 나섰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계도 발길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취준비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테크 앤 커리어 포럼’(Tech & Career Forum)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해당 설명회엔 정은승 DS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 김희승 DS부문 인사팀 글로벌 채용 그룹장(상무)이 직접 참여했는데, 김 상무는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240조 원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부문 인재 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말 5만5000명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 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 1년 만에 5만8000명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보다 연구개발비를 17% 늘려 처음으로 반기 기준 연구개발비 2조 원대를 넘었다. 시설투자 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상반기 23조3000억 원을 지출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한 번 경신했다. 이 중 반도체 사업에 21조 원을 투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전자 ‘홈테크 이노베이터’ 경진대회 개최

LG전자가 생활가전 분야의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에 나선다.

LG전자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생활가전 분야의 스타트업을 뽑는 ‘LG 홈테크 이노베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 전환(DX), 신사업

관련 기술, 제품, 사업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이다.

LG전자는 지원한 팀 중 최대 10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약 3개월 동안 콘셉트 증명(PoC, Proof of Concept)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금도 1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자동차에서 내려 미래 모빌리티에 올라타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2021 IAA 모빌리티쇼 개막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이름을 바꿨다. 단순한 명칭 변경에 머물지 않고 행사의 규모와 형태, 참가 범위, 개최 지역 등이 크게 달라졌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지난 7월, 'IAA(Internationale Automobil Ausstellung) 모빌리티' 개최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행사에는 글로벌 자동차 및 모빌리티 업체 700여 곳이 참가해 신차와 미래 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대대적 변화는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이 기득권을 먼저 버리고 '고정된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만드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자동차 업계의 절박함도 담겨있다.

◇2021 IAA 모빌리티 뭐가 달라졌나 이름이 달라진 만큼, 내용도 크게 변했다.

우선 개최장소를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옮겼다.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 자체가 자동차 산업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

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명칭 변경 규모·개최지역 등 대대적 변화

전시장 벗어나 도심 곳곳서 행사 700여개 업체 신차·기술 선포

전동 스쿠터·자전거 등 첫 등장 미래 이동수단 새 이정표 제시

문이다. 독일차, 특히 아우디와 폭스바겐·포르쉐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왔다. 지난 70여년 동안 프랑크푸르트와 모터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다.

결국, 이 도시를 떠나 뮌헨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도 자동차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진정한 모빌리티쇼로 거듭 나겠다는 주최 측의 의지도 담겨있다.

행사명에서 모터를 떼어내고 모빌리티를 앞세운 만큼, 참가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1세기 들어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가 지닌 이동의 역할 범위가 감소했다.

예컨대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했다면 이제 자동차 이외에 여러 수단이 사이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문밖에서 순간부터 전동 스쿠터→자동차→도심 항공 교통→다시 자



IAA 모빌리티는 자동차를 넘어 이동성에 방점을 찍었다. 자동차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개최 장소 역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옮겼다. 출처 IAA모빌리티 미디어

동차→다시 전동 스쿠터 등을 거쳐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커넥티드 또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전체 과정을 모빌리티로 보면 된다.

이번 IAA 모빌리티쇼에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질 다양한 이동 수단이 등장한다.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IAA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현대적인 자전거 도시 공간을 위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이동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등이 행사에 등장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까지 등장할 예정이다.

◇주요 브랜드 어떤 전략 제시하나= 무엇보다 전시 행태가 달라졌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거대한 전시장에 자동차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뮌헨 전역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 행사가 이뤄진다. 단순하게 차를 보여주는 행사를 넘어 이동성에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야외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은 자국 행사인 만큼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벤츠는 순수 전기차 5종과 고성능 하이

브리드 모델 1종을 포함한 총 8종의 신차를 공개한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전기 비즈니스 세단 EQE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편안한 주행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벤츠는 설명했다. 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AMG도 브랜드 최초 럭셔리 전기 세단 메르세데스-AMG EQS를 공개한다.

BMW 그룹은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다시 생각하고, 즐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라는 모토를 밝혔다. 순환 경제는 자원의 소비 감축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junior@

현대차, 車 본고장서 존재감 뽐낸다

수소 솔루션 등 친환경 기술·아이오닉6 콘셉트카 소개

현대차그룹은 올해 IAA 모빌리티 행사에서 반가운 손님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독일과 유럽 자동차 업체가 중심이 됐다. 현대차의 참가로 인해 안방 잔치에서 글로벌 행사로 규모가 격상됐다.

먼저 미국 브랜드는 이번 행사에 나오지 않는다. 쉐보레가 2014년 유럽 철수를 선언하면서 현지에서 미국 차의 존재감이 줄었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포드만 나선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 역시 이번 행사 참가를 철회했다. 심지어 푸조·시트

로엥과 피아트·크라이슬러가 합병해 탄생한 '스탈란티스'도 불참을 결정했다.

자칫 유럽 차의 안방 잔치로 전락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에 이례적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대대적인 불거리와 미래 전략을 들고 참가한다.

현대차는 물의 순환 구조를 빌린 디자인으로 조성한 전시 부스에서 수소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수소 추출 공법부터 저장, 운반, 사용까지의 과정을 표현한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시할 예정인 아이오닉 6 콘셉트카(프로페

시)와 아이오닉 7 관련 제품도 소개한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실물도 공개한다.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 애플티브와의 합작사인 모셔널과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2023년 미국에서 실제 도로 주행을 앞두고 있다.

기아와 제네시스는 IAA에서 전용 부스를 마련하지 않는다. 다만 모터쇼 기간 뮌헨에서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첫 전용 전기차 EV6와 제네시스 유럽 지역 전략형 차종인 'G70 슈팅 브레이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으로 IAA에서 참가하는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기반 완전자율주행 콘셉트카 '엠비전X'와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전동화 부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파노라마 선루프 에어백, 고성능 레이더 등의 첨단 기술도 소개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송음농장

“
누구나 먹는 마늘이지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귀한 마늘이 있습니다
”

동성제약

180일 4차 발효숙성 프리미엄 마늘발효액

동성제약 갈릭MF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100% 국내산 마늘에 청국장균을 결합한 갈릭MF는 비가열 숙성으로 180일의 기다림과 4번의 발효 끝에 탄생한 순수 마늘 발효액입니다.
냄새 없이, 간편하게 건강한 프리미엄 마늘 발효액을 경험해보세요.

비가열 미생물 발효로 증명된 발효과학, 동성제약 갈릭MF

180일 4차 발효 6개월동안 4번 발효 숙성시킨 순수 마늘 발효액
100% 국내산 마늘 품질 좋은 100% 국내산 마늘만을 엄선
보존료와 첨가물 Zero 無보존료 / 無첨가물 / 無설탕 / 無색소 / 無방부제

안전하고 깨끗한 송음농장

충남 청정지역에 위치한 송음농장은 동성제약 창업주인 이선규 회장의 아호를 따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Health from Nature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자연의 농법으로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갈릭MF, 이런 분께 좋습니다 ● 잦은 업무로 늘 피곤하신 분 ● 건강 관리, 체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 ●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 마늘향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

상담 및 구입문의 **1899-4789** 갈릭MF www.garlic-mf.com

중소 56% “추석 자금 부족” 경영난에 한숨

중기중앙회, 900곳 설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추석 자금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5.8%(군란 47.2%+매우 군란 8.6%)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 사정 ‘군란’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은 △판매·매출부진(78.5%) △원부자재 가격 상승(53.0%) △인건비 상승(25.7%) △판매대금 회수 지연(21.3%)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 탓에 판매·매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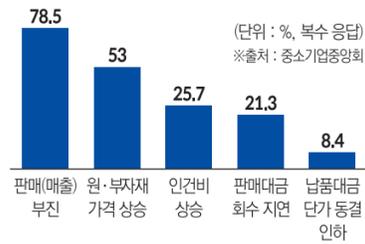
원부자재·인건비 상승 부담
필요자금 중 4760만원 부족
추석 상여금은 평균 45만원

중앙회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 여부를 물었고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9%였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7.0%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자금 조달 여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인 셈이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중소기업 자금사정 곤란 주요 원인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34.2%)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고금리(29.0%) 응답은 지난해(15.6%)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은 올 추석에 평균 3억7800만 원의 자금(임금, 원자재 등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필요자금 중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은 4760만

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12.6%로 나타났다.

부족한 추석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은 △납품대금 조기회수(45.3%) △결제 연기(40.4%) △금융기관 차입(30.2%)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도 16.4%를 차지했다.

올해 추석 상여금(현금) 지급계획에 대한 물음은 ‘지급예정’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다. △연봉제 실시(연봉에 포함 등)로 미지급(31.3%) △아직 결정 못한(21.3%) △경영 곤란으로 미지급(13.1%)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63.2%,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 45.3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추석 휴무 계획은 평균 4.8일을 휴무할 것으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판매(매출) 부진과 원자재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애로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한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출연연, 외국산 장비 구매에 5년간 6585억 썼다

국산의 4배... 수입 비중 76%

국내 장비 기술 부족에 약세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의 외산 비중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출연연은 외산 장비 구매 비중이 95%에 육박하기도 하는 등 국내 연구장비 산업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이 최근 5년간 구매한 연구 장비(ZEUS 등록 장비)는 총 3345점으로 이 가운데 외산 장비

가 2557점이었다.

특히 외산 장비구매 비중은 2018년 76.2%, 2019년 76.7%, 2020년 77.1%로 3년 연속 증가해 출연연의 수입 장비 의존이 고착화하는 추세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천문연구원(59.2%), 한국건설기술연구원(59.5%) 2곳을 제외한 22개 기관의 외산 장비구매 비중은 모두 60% 이상이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1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97.3%), 한국생명공학연구원(9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89.9%) 순으로 외산 장비 구매비율이 높았다.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 현장에서 장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전체 장비

구축예산의 81%가 해외 장비 대금으로 사용됐다.

출연연이 연구 장비에 쓴 돈은 최근 5년간 총 813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출연연들은 국산 장비구축에 1545억 원을 썼고, 외산 장비구축 비용으로 국산 장비구축비용의 4배 이상인 6585억 원을 지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작성한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전략(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통해 구축된 실험용 연구장비의 70%는 미국(40.4%)·일본(16.7%)·독일(12.9%) 3개국 제품이었으며, 국산 제품 점유율은 16.5%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국산 연구 장비의 약세 요

인으로 국내 장비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혁신 능력 부족과 저부가가치 범용 장비 제품 위주 생산, 조립·판매중심의 국내 연구 장비 산업구조 등을 꼽았다.

정필모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 장비 개발을 장기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 장비 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되는 등 연구 장비 지원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장비산업은 소재·부품·장비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산업만큼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국산 연구장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속도 전문 기업들과 전방위 협력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서비스 상용화 속도를 높여나갈 방안을 모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KM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별 자율주행 기술의 서비스화를 돕고, 이종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얼라이언스에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오토노모스에이투지 △에스더블유 △트로드라이브, 자율주행 트럭용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마스오, 전기버스 전문기업 △에디슨모터스, 자율주행기반 정밀지도 시스템 개발 스타트업 △스트리스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플레이어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 원격 관제 솔루션 기업 △드라이브유, 글로벌 지능형 모빌리티용 ADAS 공급업체 △콘티넨털 등 세계적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LG그룹 △GS칼텍스·GS에너지, 최근 협업 관계를 구축한 △한진과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스템 △차량 △정밀지도(HD Map) △모니터링·관제 △연계 서비스 등 자율주행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파트너십으로 연결하고, 이들과의 사업협력, 공동 기술연구 등을 통해 각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하고,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파트너사에는 기술을 빠르게 실증해볼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환경에 최적화된 배차, 라우팅(경로생성), 도착 예정 시간(ETA) 산출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이 안정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율주행차를 공간의 제약 없이 ‘사물과 서비스의 이동’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 바탕이 됐다.

파트너 기술 인증 제도 도입, 자율주행 해커톤,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파트너사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자율주행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도 주력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KT, 공공 전용 클라우드 기반 지자체 재택근무 시스템 운영

KT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공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은 사용자별 권한에 맞는 고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국정원 재택근무 보안 기준을 충족한 솔루션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획득했다.

KT는 전용회선 구축부터 G-Cloud까지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다. 따라서 KT의 재택근무 시스템은 지자체가 외부 연동 사업자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모든 업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뤄지며 사내 메신저도 사용할 수 있어 소통도 원활하다. 개인 PC에 남은 자료가 없어 행정문서가 유출될 가능성도 적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KT의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창석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전무)은 “G-Cloud 기반 재택근무 솔루션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개발했다”며 “KT가 강력한 보안성과 효율 높은 트래픽 관리를 제공해 지자체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SKT, 구독경제 플랫폼 ‘T우주’ 캠페인 개시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서비스 아마존·11번가 쇼핑 등 혜택

SK텔레콤이 신개념 구독 플랫폼 서비스 ‘T우주’ 신규 광고를 공개하고 구독 경제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렸다.

SKT는 2편으로 제작된 T우주 캠페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독 세상을 만들어 가는 큰 걸음에 걸맞게 최근에 보이지 못한 엄청난 스케일과 광고를 뛰어넘는 몰입감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T우주’ 서비스는 SKT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구독 상품을 T우주에 모아 소비자의 새로운 구독 생활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독 비즈니스다. SKT 고객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의 고객들까지도 자유롭게 T우주 서비스를 T월드, SK텔레콤매장, 11번가에서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T우주 서비스 상품인 우주패스는 All 과 Mini 두 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우주패스 All 서비스는 아마존 해외 직구 배송비 무료 및 1만 원 할인과 11번가 3000포인트의 혜택, 구글원 클라우드 100GB 제공과 T우주 구독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 한 가지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구독료가 9900원이다. 우주패스 mini 역시 All 서비스와 같은 아마존, 11번가 혜택이 제공되며 구글원 또는 웨이브(wavve) 중 한 가



지 서비스 선택할 수 있고, 월 4900원이라는 가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입 시점으로부터 한달간 우주패스 All 1000원 및 우주패스 mini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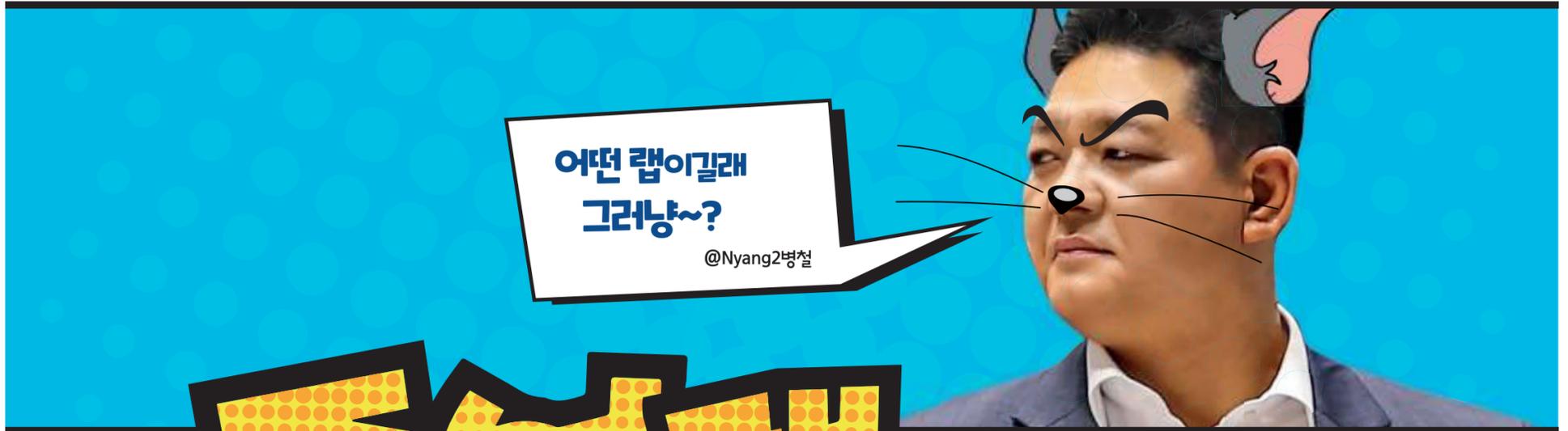
신규 광고 캠페인은 SK텔레콤 구독 플랫폼 서비스의 대표 특징인 ‘우주적’ 스케일의 서비스의 탄생과 다양한 구독 상품의 집합을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라는 슬로건으로 담아냈다. 우주는 브랜드명에서 알 수 있듯 현존하는 가장 큰 세계인 우주를 통해 대한민국 구독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SKT의 도전 의지를 광고 캠페인에도 반영했다.

T우주의 탄생을 알리는 ‘몽정 편’은 일상에서의 익숙한 생활이 지쳐 갈 때쯤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주변의 구독 가능한 상품들이 일제히 우주로 발사되며 T우주의

거대한 탄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우주패스 편’은 아마존, 구글, 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11번가, 이마트, 배달의민족, 파리바게뜨, 웨이브 등 국내 유명 브랜드 및 다양한 소상공인의 구독 혜택 패키지인 ‘우주패스’ 상품을, ‘우주’라는 스토리에 어울리게 긴장감 넘치게 전달했다.

SK텔레콤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그룹 예희강 그룹장은 “T우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우주 파트너’ 사들을 조화롭게 노출하는 이른바 ‘상생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전반을 아우르는 ‘우주’ 콘셉트와 연계한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광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하나금융그룹



증여랩을 잡아라!

"성공적인 증여를 결심한 그들!
과연 증여랩을 잡을 수 있을까?"

FORTUNE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2021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투자

- 경제지 포춘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50대 기업이 투자 유니버스
- ESG 및 우량주(Quality) 등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

*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투자 가치, 재무상태, 제품의 질, ESG, 인재 확보 능력 등으로 선정



증여랩



*상품 특징

포춘 50 올스타 중 지속가능한 ESG 우수 기업에 투자

지속가능한 기업에 집중하고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익 추구
→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신고금액 1,000만원 이상 시 횡수제한 없음) 및 장기 투자에 유리한 수수료 구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장기보유형: 선취 1.0%, 후취 연1.2%(기간별상이) · 자산배분형: 선취 1.0%, 후취 연1.2%(기간별상이)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랩 계약은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중개회사 및 해외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중개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발생 관련 내용(증여랩 가입고객 대상 최초증여, 기증여합산증여에 대한 현금증여 신고 대행서비스 무료 제공) 및 과세 기준·과세방법 등은 향후 세법 개정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2960호(2021.06.21~2022.06.20), cc브랜트210714-0113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원두 대신 캡슐” 홈카페족, 커피 소비지형 바꾼다

원두 오르며 커피값 인상 예고
캡슐커피 시장 3년 새 2배 커져
스타벅스·폴 바셋 등 캡슐 강화
종류 늘리고 추석선물세트 내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장기화로 ‘커피 소비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홈카페족이 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원유, 국제 커피 원두 가격 인상 이슈까지 덮여 커피값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캡슐커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캡슐커피 시장은 2018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긴 후 2019년 1387억원에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해 약 20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3년 사이에 2배나 가파르게 성장한 셈이다.

코로나 감염증에 더해 커피값 인상도 홈카페족 수요 증가를 부채질한다. 국내외에서 원유, 커피원두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잇따르면서 커피값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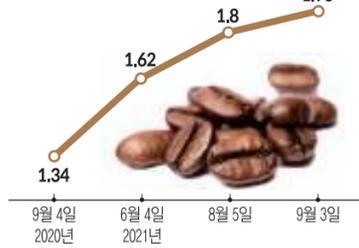
성이 커짐에 따라 대체재로 홈카페용 제품을 찾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낙농업계가 이달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1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인상했고, 코로나 여파에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원두커피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BOT)에 따르면 국제 커피원두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파운드(0.45kg)당 1.96달러로 1년 전(1.34달러)보다 46% 가까이 올랐다. 세계 최대 커피원두 생산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커피산업협회는 내달 말까지 커피 소비자 가격이 35~49% 오를 것이라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커피 업계는 늘어나는 홈카페족 수요에 대응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슬레 코리아는 이날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팔던 자사의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옛 홈 캡슐 커피 제품 판매처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 15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캡슐커피 소비자 and 접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시도다.

로만 이루어 네슬레코리아 커피 사업부

국제 커피원두 가격
(단위: 달러/파운드(0.45kg))
※출처: 뉴욕상업거래소(NYBOT)



문장은 “스타벅스 애크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발맞춰 스타벅스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커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많은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벅스 애크스의 퀄리티 높은 프리미엄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업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폴 바셋’도 캡슐커피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출시했던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커피에 이어 지난달 돌체구스토 호환용 바리스타 캡슐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사진>



커피전문점 카페메네도 캡슐커피 출시에 가세했다. 최근 카페메네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 ‘베네 캡슐 퍼플 블렌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카페메네는 코로나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되면서 캡슐커피 업계 전반에 캡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불거진 점을 감안해 캡슐커피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홈카페족을 겨냥해 추석 선물세트를 만들었다. 투썸플레이스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초 론칭한 홈카페 브랜드 ‘에이리스트’ 전 제품과 텀블러, 머그잔 등 MD제품을 담아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에이리스트는 투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원두(블랙그라운드·아로마노트·디카페인)로 만든

핸드드립커피와 스틱커피, 캡슐커피, 콜드브루 등으로 구성된다. 선물세트 종류 역시 지난해 5개에서 올해 6개로 늘렸다.

할리스는 홈카페족을 감안해 전년보다 추석 선물세트를 2종에서 5종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에는 스틱, 텀블러, 머그 등으로 단조롭게 구성했다면 올해는 MD상품을 포함한 핸드드립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한 ‘굿 모먼트 에디션’을 출시하는 등 예산과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추석선물세트에 캡슐커피 제품을 추가했다. ‘캡슐커피 선물세트’는 이디야커피가 지난해 11월 처음 선보인 캡슐커피 3종과 함께 캡슐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케이스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캠핑선물세트, 티타임 선물세트 등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에 맞춰 기획을 다변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커피믹스, 머그컵 등에 홈카페족 겨냥 제품이 한정됐다면 요즘은 소비자들의 취향도 고급화·프리미엄화하면서 핸드드립 관련 제품이나 캡슐커피 등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뉴 뷰티 만들자” 아모레퍼시픽, 메타버스에서 창립 기념식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창립 76주년을 맞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비대면 형식으로 기념식을 지난 3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경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실현해 진정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뉴 뷰티’의 세상을 만들자”라면서 “바이오·더마 등의 고기능 영역과 건강을 위한 웰니스(Wellness) 카테고리 집중 육성해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르는 ‘라이프 뷰티’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메타버스에 개최된 창립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서 회장은 이어 “세밀하게 축적된 고객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화된 ‘초개인화 뷰티 솔루션’

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 모두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으로 진일보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그룹사 직원들은 각자 캐릭터를 설정하고 아이템을 장착한 채로 메타버스에 참여해 축제 콘셉트로 개최된 76주년 창립일을 기념했다.

기념식행사는 서경배 회장의 76주년 창립기념사와 장기근속자 축하, 구성원과 함께 2025년 비전을 선포하는 식순으로 진행됐다. 김혜지 기자 heyji@



한섬 ‘SJYP’, 샘바이펜과 컬래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의 영캐주얼 브랜드 ‘SJYP’는 유명 아티스트 샘바이펜(SAMBY PEN·본명 김세동)과 협업해 ‘컬래버레이션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샘바이펜은 자유롭고 개성있는 캐릭터를 창조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다. 이번 컬렉션은 SJYP의 대표 캐릭터 ‘디노(DINO)’를 새롭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한섬

자연 품은 아울렛 ‘타임빌라스’ 10일 그랜드 오픈

소풍 즐기는 복합문화공간
경기 남부 ‘힐링 명소’ 도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가 8일 프리 오픈을 거쳐 10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타임빌라스’는 ‘시간(Time)’과 ‘별장(Villas)’의 합성어로 매장 이름을 붙였다.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아울렛의 혁신을 보여준다.

‘Every Single Moment - 당신이 만나는 모든 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휴식’ 컨셉의 복합문화공간을 제안한다.

연면적 약 17만 5200㎡ 규모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에서 245개의 브랜드가 입점한다.

타임빌라스가 들어선 경기도 의왕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생태 휴양도시로 전체 면적의 85%가 녹지공간이다. 서울의 강남과 잠실에서는 30분, 서울 사당과 경기도 분당, 수원, 안양 등에서는 20분이면 도착하는 최적의 접근성이 강점이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타임빌라스’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로 백운호수, 바



라산과 함께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에 도전한다.

특히, 타임빌라스의 시그니처 공간은 투명한 유리 온실을 연상시키는 ‘글라스빌(GLASS VILLE)’이다. 최근 서울의 ‘익선동’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약 9300㎡ 규모의 야외 녹지 공간에 세워진 총 10개의 ‘글라스 하우스’는 바라산을 배경으로 독특한 풍광을 선보인다.

‘글라스빌’ 앞으로 넓게 펼쳐진 ‘플레이빌(PLAY VILLE)’에서는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쿠아파크’와 넷트형 놀이시설을 갖춘 ‘와일드파크’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글라스빌’과 ‘플레이빌’을 둘러싼 산책길에는 1000여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어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타임빌라스’는 기존 교외형 아울렛 매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하드웨어로 탄생했다.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외형 아울렛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폐형 천장’과 ‘폴딩 도어’를 구축했다. 야외의 ‘글라스빌’도 지하 매장들과 연결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웰컴 광장인 ‘더스테이션’에서는 30m 높이의 유리돔 천장을 통해 자연 채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2층에는 백운호수의 석양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닝 존’을, 옥상에는 잔디밭에서 백운호수와 바라산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 피크닉 광장’을 만들어 ‘뷰 맛집’에도 도전한다.

‘타임빌라스’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에 집중해 자녀 동반 고객을 겨냥한 아동·유아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특징이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황범석 대표는 “타임빌라스는 네이밍부터 설계까지 모든 부분에서 기존 아울렛과 차별화했다”라며 “단순 쇼핑을 넘어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유통업계 “1500만 펫콕족 잡아라”

SSG닷컴 ‘몰리스SSG’·롯데쇼핑 ‘콜리올리’ 등 사업 강화



유통업계가 반려동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펫콕족’이 늘며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3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은 1500만 명에 육박한다.

SSG닷컴은 프리미엄 반려동물 전문관 ‘몰리스SSG’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사료와 간식 등 식품과 의류, 장난감 등 비식품을 모두 합쳐 총 400만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전문관 이름은 이마트 펫용품 전문매장인 ‘몰리스’의 익숙한 명칭을 사용했다.

SSG닷컴은 트렌디한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안해 ‘펫코노미’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몰리스SSG’는 사료, 간식, 패드 등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부터 기능과 성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상품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지출을 늘리는 구매 트렌드를 반영

해 프리미엄 상품 비중을 30%로 높였다.

롯데쇼핑은 최근 ‘콜리올리’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며 사업에 힘을 준다. 롯데마트는 콜리올리 이달 중은평점에 반려동물 전문숍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조예가 깊은 5명으로 구성된 팀이 기획한 매장으로, 반려동물용품, 먹거리, 펫 전용 전자기기부터 건강기능식품, 가구까지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장은 반려동물용품은 물론 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반려동물 전자기기 등을 총망라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4월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에바아웃’을 내놨다. 이어 7월에는 반려동물 1등 전문몰 ‘펫프렌즈’를 인수하고, 지난달에는 SBS와 함께 자회사인 ‘에바아웃’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사가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은 GS리테일이 80억 원, SBS가 135억 원 등 총 215억 원이다. 남주현 기자 jooh@

통신3사 '脫통신' 전략에 외국인 '러브콜'

5G 모뎀·구독서비스 등 사업다각화에 실적 성장 기대
외국인 SKT 45.04%·KT 44.23% 등 지분 확대 움직임
국가기간산업 통신업 49%로 제한...빠르게 한도소진 중



외국인 보유 상위 종목 ※ 기준: 9월 3일 ※ 출처: 한국거래소

종목명	상장주식 수	외국인 보유수량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한도수량	외국인 한도소진율
SK텔레콤	7206만 주	3245만 주	45.04%	3530만 주	91.91%
KT	2억6111만 주	1억1547만 주	44.23%	1억2794만 주	90.26%
LG유플러스	4억3661만 주	1억4477만 주	33.16%	2억1393만 주	67.67%

외국인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주식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고 있다. 구독 서비스 등 탈 통신 전략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배당 매력도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SK텔레콤 주식 3239만 6632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수량(3530만9470주)의 대부분을 채워한 한도소진율은 91.7%에 달한다. 외국인 계정수로 답을 수 있는 SK텔레콤 주식 역시 291만 주에 불과하다. 같은 날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KT 주식 1억1541만6718주를 보유해 한도소진율 90.2%에 다다르고 있다. 이어 LG유플러스 주식 1억4482만 1959주를 보유해 67.6% 한도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통신주가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하반기 통신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게 보고 있어서다. 이동전화 ARPU(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 상승과 동시에 경영진의 강력한 비용통제에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반기 놀라운 실적 개선에도 최근 단기 주가 조정으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며 "△전략 단말기 출시에 따른 5G 가입자 순증 △통신사 배당금 전망 △통신사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 추이 등에 시장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5G 도입으로 인해 이익 성장이 배당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 경영진들이 최근 주가 관리에 적극적이어서 재료·수급 강화가 예상된다"라고도 짚었다.

그간 이동통신 3사 주식은 투자자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지만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선입견이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자 주가·실적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투자자 눈길이 쏠린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한 점은 '상승세가 지속될까'다. 전문가 의견은 '예(Yes)'다. 무엇보다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

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집계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에 따르면 KT 목표주가는 4만2028원, SK텔레콤 39만4444원, LG유플러스 1만9265원 등으로 나타났다.

5G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분기 말 SK텔레콤의 5G 가입자는 769만6000명으로 전 분기 대비 96만 명 증가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5G 비중은 3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는 39만1000명 늘어난 372만2000명(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32.9%)을 기록했다. 2분기 말 KT의 5G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61만 명 증가한 501만4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5G 비중은 35%에 달해 통신 3사 중 가장 높았다. 작년 2분기 말(223만7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G 가입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탈 통신 전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아마존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이 포함된 구독 상품 'T우주' 서비스를 내놓았다. 시장에 이미 많은 구독 서비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차별화는 필수적인데 SK텔레콤은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스타벅스 등을 제휴 파트너사로 선택함으로써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회사 측은 오는 2025년 매출 1조 7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KT와 LG유플러스도 외부업체와 제휴를 통해 구독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기존 올레tv 모바일에 지상파를 포함한 '시즌 X' 할리스 커피와 제휴한 '시즌 X 할리스' 구독을 출시한 바 있다. 디즈니플러스 제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게임부문을 엔비디아와 제휴해 지포스나우를 서비스하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통신업체는 전국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강점을 갖고 있다. 기존 매출이 구독경제와 유사한 월과금 모델이라는 게 장점이다"라며 "기업의 구독 서비스 확대 기초에 이어 소비자의 구독서비스 필요성도 늘어나 당분간 다양한 구독서비스가 공존하는 형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인아 기자 ljh@

8만전자 가나? ... 外人, 삼성전자 '폭풍매수'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악재 상당 부분 반영"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힘입어 '8만전자'를 향한 반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4분기 반도체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가 지나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면서 매도하던 외국인의 삼성전자 귀한 행렬에 주가도 본격적인 반동에 나설 수 있다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00원(0.91%) 오른 7만 7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7만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2일(7만7000원) 이후 약 1달만이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순매수세가 5거래일째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31일 3600억

4100만 원 △9월 1일 633억4500만 원 △2일 653억200만 원 △3일 1901억 3800만 원 이날 1057억1100만 원 등 총 7845억3700만 원을 순매수 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인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왔다. 올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순매도한 삼성전자 주식 규모만 20조 4403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5일 장중 8만3300원에서 20일 장중 7만2500원까지 불과 보름여 만에 13.0% 급락했다. 하지만 이날 증가는 7만7300원으로 낙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최악의 가정까지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라며 "단기적으로 과도한 주가 하락을 만회하는 주가 반등을, 이후 전방 주문 확대 구간에서 주가 랠리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4분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견고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8월 수출 통계에서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3000만 달러(한화 약 13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 4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이 꺾일 것 이란 전망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시장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업황을 고려하면 4분기에는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피크아웃하지 않고, 견조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한국 반도체 업종 혹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미래에셋증권·한국남부발전 ESG 채권 발행 업무 협약

미래에셋증권은 한국남부발전과 ESG 채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여의도 사옥에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남부발전의 의지와 ESG 채권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미래에셋증권의 니즈가 맞물려 진행됐다. 앞으로 양사는 지속가능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현대중, 공모가 최종 6만 원 확정

수요 예측 1633곳 참여 1836대 1

현대중공업은 3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서 공모가를 6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모가 희망범위인 5만2000원~6만 원의 최상단이다.

현대중공업은 상장을 앞두고 총 1800만 주를 발행했다. 이 중 55%인 990만 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해외 기관투자자 총 1633곳이 참여했다. 수량은 181억 주에 달해 경쟁률은 1836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체 주문 규모는 1130조 원이다. 대부분의 참여 기관이 공모가 희망범위의 최상단 금액을 제시했다.

또 최단 15일에서 최장 6개월인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수량도 총

신청 수량 대비 53.1%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2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최대 1조8000억 원의 기업공개(IPO) 조달 자금 중 7600억 원을 차세대 선박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현대중공업의 현재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 모두를 높이 평가해준 기관투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현대중공업이 이번 IPO를 미래 성장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7일과 8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전체 공모주 물량 중 25%인 450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공동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KB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대신증권·DB금융투자·신영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금감원, 대표이사 가족계좌 등 사적 이익 추구 적발

사모펀드 전수조사... "중대 위법행위는 없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 임직원들이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비시장성 자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37곳(전체의 15.9%)을 우선 검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 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경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A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

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받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하도록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운용사는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타운용사 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취득했다.

C운용사에서는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수수료를 받아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사례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판매사와 수탁사를 통해 운용사 감사와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을 업계에 공유하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 등 353개 사)는 사모펀드 9014개를 자율점검해 652건에 대해 심층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펀드 652건을 점검한 결과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 불법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직권 등록말소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

“AS·품질 ‘단독시공’ 이 낫다” 찬밥신세 된 ‘컨소시엄’

올해 서울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상계2구역’ 서만 컨소시엄 택해 “하자보수시 책임 소재 불분명” 조합원, 단일 건설사 입찰 선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재건축단지·1970가구)과 동작구 흑석11구역(재개발단지·1509가구). 이들 정비사업지의 공통점은 15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도 올 들어 시공사로 단일 건설사를 선정했다는 점이다. 2년 전만 해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에선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선 조합들로부터 찬밥 취급을 받기 일쑤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지에서 단독 시공사 선정 사례가 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들이 건설사 컨소시엄(2개 이상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보다 단독 시공사 참여를 선호해서다.

올해 진행된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단독으로 입찰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북가좌6구역(시공사 DL이앤씨)·흑석11구역(대우건설) 외에 서울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소규모 재건축)와 양천구 대경연립(재건축) 사업지에서도 각각 현대건설과 반도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올해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단지(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가 유일하다.

시공사 컨소시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

올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현황

지역	정비사업명	시공사	공사규모	비고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대우건설	4501억원	단독
용산구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현대건설	731억원	단독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DL이앤씨	5351억원	단독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	반도건설	406억원	단독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대우·동부건설 컨소시엄	4776억원	컨소시엄

단독 vs 컨소시엄 시공사 장단점

	단독	컨소시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결정과 추진 가능 1군 단위 브랜드 적용 시 경쟁력 우수 책임소재가 명확해 하자·보수 등 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건설사 장점과 브랜드 이미지 동시 획득 대단지 프리미엄 아파트로 지역 랜드마크 역할 마케팅 효과 뛰어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지 않은 사업비 부담으로 건설사 리스크 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하자·보수에 어려움 시공사 간 비경쟁으로 단독 입찰보다 사업조건 떨어져

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자동 유찰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돌입했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재입찰 공고 철회를 검토 중이다. 조합원들은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준공 후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점, 여러 브랜드가 섞여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재공고 시 ‘컨소시엄 참여 불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다음 달 16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추후 시공사 선정 입찰 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비사업 입찰에 나서는 이유는 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혈 경쟁도 적어 브랜드 홍보·마케팅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선 컨

소시엄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컨소시엄으로 지은 아파트는 시공주체별로 담당 영역이 달라 같은 아파트라도 단지별로 시공 품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건물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건설사들이 서로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않아 입주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다수 정비사업지에선 조합이 시공사 입찰 공고 때부터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단독 시공사 선정 시 신속한 결정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다수 건설사가 경쟁을 벌이면 더 좋은 사업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내 정비사업 물량이 귀한 상황에서 조합이 단독 입찰만 고집하면 사업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정비사업 단지와 유찰이 빈번한 단지가 뚜렷하게 갈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집값 오르면 ‘분양’ 받고, 내리면 ‘손절’하고 임차인에 유리한 ‘누구나집’

건설사가 리스크 떠안는 구조 접근성 떨어지는 후보지도 문제 유인책 없어 민간참여 ‘물음표’

정부가 6일 이른바 ‘송영길표’ 주택정책으로 알려진 ‘누구나집’의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인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흥행의 관건인데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길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한다. 임차인이 10년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경우 입주 시점에 미리 정한 ‘확정 분양가격’으로 온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를 경우 그만큼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사업자와 임차인의 개발 이익 공유 구조다. 정부는 매년 집값이 최대 1.5% 상승하다는 가정 아래 확정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연 1.5% 상승률이면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수익률(IRR) 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문제는 집값이 상승해도 사업자는 입주 시점의 시세와 10년 뒤의 확정 분양가 내에서만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 즉 확정 분양가격에 제한되므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10년 전에 미리 확정된 분양가 이상의 시세 차익은 임차인이 향유하는 방식인 셈

이다. 누구나집이 철저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업모델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10년 뒤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 시점 주택 가격이 입주 때보다 상승했다면 입주자는 무조건 분양 전환을 선택하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 경우 분양을 받지않아 손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임차인은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확정 분양가를 상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한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분양 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해도 그 범위가 크지 않은데 리스크는 온전히 떠안아야 해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호응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간 사업자의 호응이 낮다면 누구나집의 흥행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역시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와 기금 등 공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정 정책의 혜택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정책이 안착하기 어렵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지가 인천과 경기 의왕·화성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아니어서 수요를 쉽게 끌어들이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인천 “공공주도 개발 반대” 주택공급 ‘먹구름’

후보지 세 곳 “사유재산 강제수용” 총 56곳 중 29곳 ‘취소요청’ 빚발 강제보다 민간시행 정책전환 필요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인천과 경기 부천시,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 반대조직인 ‘공공 주도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은 7일 정부에 인천 제물포·동암·굴포천역세권 사업 지정 취소를 공식 요청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도심 복합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 3분의 2 동의로 나머지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 공급 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보지 내 소유주의 10%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선정되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도심 복합사업 주요 후보지 내 주민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인천 후보지 세 곳을 포함해 사업 철회를 요구한 지역은 전체 사업지 총 56곳 중 29곳에 달한다. 지난달 3일에는 제6차 도심 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주요 반대지역 ※출처: 공공 주도 반대 전국연합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 다지탈단지역 인근(역세권) 영등포역 인근(역세권) 중산4구역(저층) 신길15구역(저층) 	<p>4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제물포·동암·굴포천역 인근(역세권)
<p>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암역 북측(역세권) 수유12구역(저층) 미아사거리 동측(역세권) 	<p>5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시 송내역·소사역 북측(역세권)
<p>3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감삼동(저층) 대구 병덕동(저층) 	<p>6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수역 인근(저층)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이란?

-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구역에서 발표 열흘 만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약수역 인근 구역 내 주민들은 현재 사업 반대 주민 의견을 접수 중이다.

강남구 일원동 일대는 아예 주민들이 정식 후보지 지정 이전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 공모 추진 움직임이 포착되자 곧장 반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서울 시내뿐 아니라 인천과 부천(소사역 일대), 대구(감삼동·병덕동)에서도 도심 복합사업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기존 후보지가 운데 추가 이탈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6월 국회 문턱을 넘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안하는 용적률 혜택 낮거나 주민 부담금이 많아져 반대 여론이

우세해지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반대 여론 확산에도 정책 수정 없이 도심 복합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서울 은평구 중산4구역 등 13곳에서 추석 전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용적률과 주민 부담금 가이드라인 등 사업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에선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와 공공임대주택 증가에 큰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개발을 억지로 유도하기 보다는 민간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업이 더딘 곳에 공공이 개입하는 형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위치(규모)	면적	가구수
화성능동(60~85㎡)	4만7747㎡	899
의왕초평(60이하및 60~85㎡)	4만5695㎡	951
인천검단AA26(60㎡이하)	6만3511㎡	1366
인천검단AA31(60이하및 60~85㎡)	3만4482㎡	766
인천검단AA27(60~85㎡)	10만657㎡	1629
인천검단AA30(60이하및 60~85㎡)	2만876㎡	464
총 6075가구		

※출처: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쇼 타워’ 재개발 수주

연면적 6.5만㎡·총 2400억 규모

현대건설은 공사금액 총 2억2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쇼 타워’(Shaw Tower) 재개발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상 32층 규모의 고급 오피스 빌딩과 지상 6층 근린시설(포디움)을 신축하는 것이다. 연면적은 6만4728㎡,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8개월이다. 쇼 타워의 설계는 주시열인 업무공간뿐 아니라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야외 원형극장, 하늘정원 및 카페, 테라스 등을 추가해 상업공간과 편의 환경을 통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동차 없는 도시를 추구하는 싱가포르

비전에 따라 쇼 타워에는 원활한 보행자 통로와 주변 관공서 및 도심고속철도(MRT)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

1975년 완공된 쇼 타워는 지난 46년간 싱가포르 중심 랜드마크 건물로 자리매김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쇼 타워는 싱가포르 중심지인 마리나 지역과 2030세대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는 부기스 지역을 연결하는 상업·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쇼 타워 재개발 공사 수주는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얻은 쾌거”라며 “앞으로도 해외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수능 51만 명 지원 '화법 작문'·'확률 통계' 선택 절반 넘어

고3 재학생 지난해보다 1만4037명 늘고 졸업생 비중 낮아져 첫 문·이과 통합수능... 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

올해 11월 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982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가 사상 처음 49만3434명으로 내려간 지 1년 만에 50만 명대를 회복했다. 올해 첫 문·이과 통합 수능의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국어), '확률과 통계'(수학) 선택이 절반을 넘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수

능 원서접수 접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정시 확대, 약대 선발로 지원자 증가' =수능 지원자는 고3 재학생이 많이 늘었다. 고3 재학생은 36만71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4037명 증가했다. 졸업생은 13만 4834명으로 1764명 증가했고, 검정고시 출신은 1만4277명으로 586명 늘었다. 졸업생 비중은 26.4%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27.0%보다는 0.6% 포인트 내려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한 비율은 29.2%로 지난해(29.8%)와 비슷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지난해 고3 수험생이 6만 명 정도 감소한 만큼 올해는 재수생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와 의대 모집인원 증가, 37개 약대 학부 모집으로 졸업생이 소폭 늘었다"며 "재학생도 올해 고3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지원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로 치러진다. 국어영역 지원자 총 50만7129명 중 70.6%인 35만7976명이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을, 29.4%인 14만9153명이 '언어와 매체'를 택했다. 수학은 총 지원자 48만3620명 중 53.2%(25만7466

명)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인문계열 학생이 응시한다. '미적분'은 18만4608명(38.2%) '기하'는 4만1546명(8.6%) 등 이었다.

◇수능 지원 졸업생 증가폭 예년 수준=9월 모의평가에서 급증해 관심을 끌었던 졸업생 지원자 수의 증가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9월 1일 치러진 모의평가 전체 지원자 51만8677명 중 졸업생은 전년 대비 3만1132명 늘어난 10만9615명이었다. 당시 졸업생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노린 '하수 지원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게 화이자

백신 우선접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수능만 보는 졸업생이 5만 명 정도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이 학생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9월 모평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어 단정적으로 '백신 하수 지원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졸업생 중 실제 몇 명이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이달 30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1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이날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채점 결과 발표에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 수도 포함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해양경찰과 함께 코로나 극복” 2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들이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장기화한 코로나 상황에 지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메시지 ‘코로나19 해양경찰과 함께 이겨내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고용된 사장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법원 “계약상 근로자에 해당”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 판결

이른바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 이사였던 A 씨는 2018년 말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회사 대표는 당초 친척인 B 씨였으나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됐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B 씨가 보유하고 있는 등 회사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운영한 것 보인다”며 “A 씨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외에 회사 영업으로 인한 이윤 창출이나 손해 발생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며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 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개인 비행자격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코로나 불황에 연금복권 ‘볼티’ 판매액 역대 최대

올 상반기 1442억4900만 원 작년 동기 대비 66.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연금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금복권 720+’ 판매액은 1422억 49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다.

이는 연금복권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판매액이다.

연금복권은 출시 첫해인 2012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상반기 판매액만 1312억 9300만 원에 달했다.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은 20년간 매달 율



6일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에 내걸린 홍보물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급처럼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차별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3년 상반기에는 680억7900만 원으로 판매액이 반으로 줄어 들었다.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500억 원대를 유지하던 연금복권 판매액은 2020년 상반기 854억8700만 원으로 뛰어오른 뒤

2021년 상반기에는 14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연금복권이 당첨금을 높였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판매되던 ‘연금복권 520’은 7개 숫자를 모두 맞춘 1등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세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2020년 새로 도입된 ‘연금복권 720+’는 20년 동안 매달 세전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첨금이 올라갔다.

연금복권과 함께 로또(온라인복권)도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전년보다 10.3% 증가한 2조5461억1000만 원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판매액은 2019년 상반기 2조 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2조5000억 원대를 처음 돌파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오세훈 “불법수사 자행 공안경찰에 항의”

“청와대 개입” 주장도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장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등 1시간 가량 진행된 참고인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와 동의, 영상녹화, 진술 조서 작성·열람과 날인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 방향과 다른 참고인 진술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명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입장 발표 후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입장발표나 브리핑 전에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취합한 뒤 답변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불법 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첫 공판 내달로 연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부장판사는 7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항

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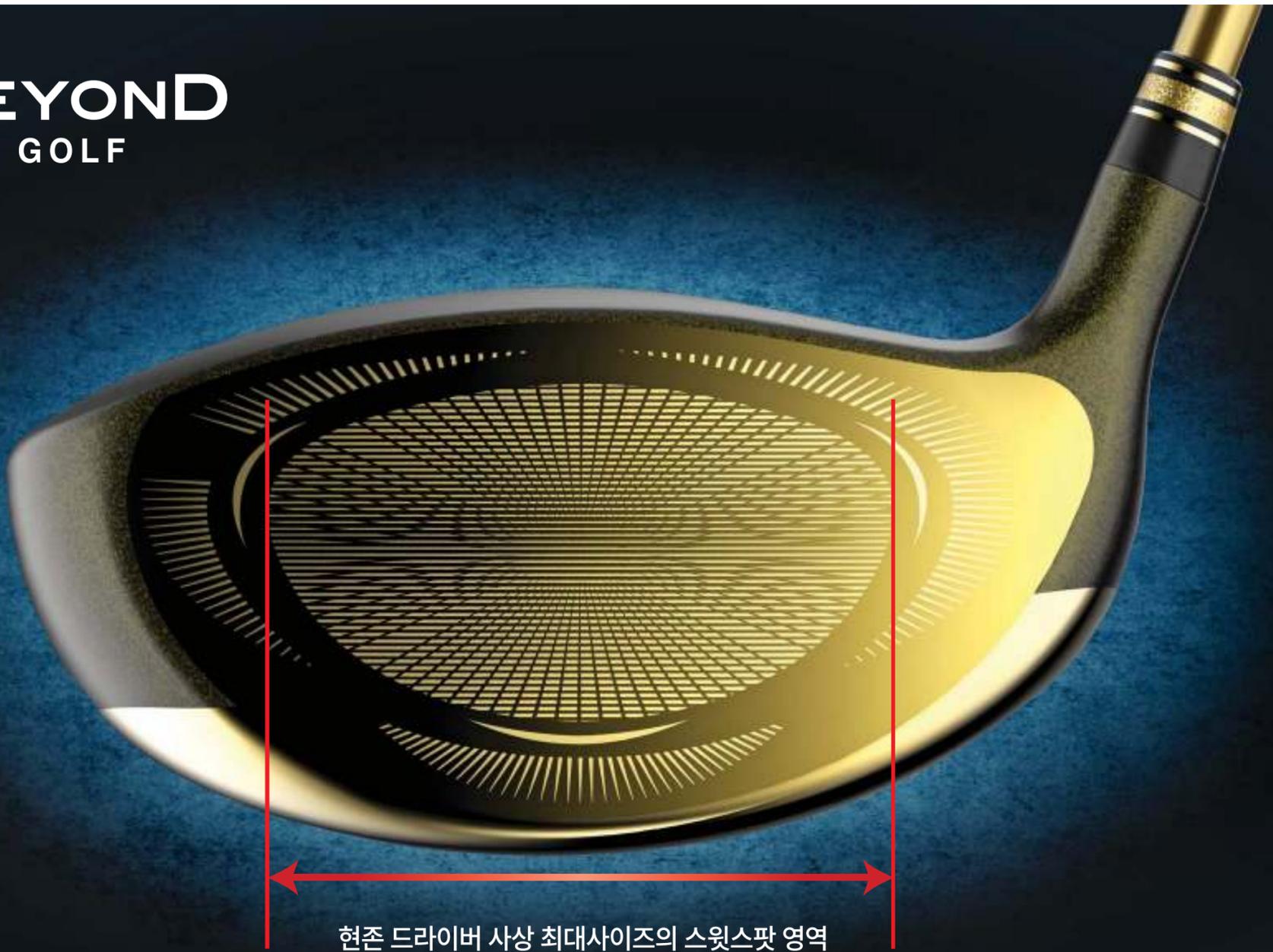
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삼용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구예지 수습기자 sunrise@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www.beyondgolf.co.kr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육아 관심 많은 아빠 ‘음악을 놀이처럼’ 고민했죠”

‘음악 교구 전문’ 고상한형제 흥성현 대표

한예중서 음악학 전공, 아이들 위한 클래식 콘서트 제작 경력 AI 접목 ‘뮤직파이버’ 개발...완성된 악보 음표 인식 소리 재생

고상한형제는 그동안 발전하지 못해온 음악 교구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차별점은 안정성과 혁신성이다. 고상한형제의 모든 제품은 국내 생산으로 이뤄지며, 음악 교구 시장에 생소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했다. 신기술이 적용됐지만, 사용법은 간단명료하다.

음악을 전공한 대표이사(아빠)가 아이들에게 적합한 손쉬운 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올해부터 고상한형제를 대표하는 에듀테크 제품 뮤직파이버가 출시됐다.

흥성현(사진) 고상한형제 대표이사는 6일 서울시 마곡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느 아빠들처럼 육아에 관심이 많았고 우연히 음악과 관련된 자석 교구를 찾아볼 수 없음을 알게 됐다”며 창업 배경을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자석 교구가 단순한 형

태의 제품 위주라면 뮤직파이버는 아이들로 하여금 놀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고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더해 에듀테크(EduTech) 제품으로 승화시켰다”며 “직접 음표 자석을 오선지(보드) 위에 붙여 만든 나만의 악보를 다양한 악기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흥 대표는 뮤직파이버의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보드에 직접 붙여 만든 음표들이 다양한 악기 소리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현됐다. 최근 음악 관련 창의 교육이 주목받은 가운데, 좋은 교육 교구로 판단됐다. 제품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자신감과 목표의식이 뚜렷했다.

흥 대표는 교구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담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음악학을 전공한 그는 첫 직장, 공연기획사에서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고 빈소년합창



단의 내한 공연을 통해 음악을 마주하는 우리만의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클래식 공연은 미취학 아동 입장 금지’라는 팻말과 마치 선을 그은 듯한 그들(음악가)만의 문화라는 방벽을 가지고 있다.

흥 대표는 ‘내 생애 첫 클래식 콘서트를

가다’라는 미취학 아이들만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를 제작하는 등 창업 전 1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작품의 제작에 힘썼다. 그는 10여 년의 경험 속에서 음악 교육의 다양성 부족을 느꼈다고 했다. 사회와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음악 교구 시장은 악보 책자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흥 대표는 “뮤직파이버는 홍콩, 일본 등 관련 해외시장을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살펴보고 만든 국내 및 세계 최초 음악 자석 교구”라며 “악보를 펼쳐놓고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음악 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뮤직파이버의 교육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된 악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해 음표를 인식, 소리로 재생할 수 있다”며 “악보를 읽고 쓰는 방법(기보법)은 전 세계 누구나 동일하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에듀(Edu)’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은 뮤직파이버 기술을 활용한 음악 교구 영역의 확대다. 흥 대표는 현재 구현된 인공지능 기반의 음표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음악 교구 영역 확대를 기획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월급 얼마예요” 초등생 질문에 마크롱 “세후 1170만원” 공개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한 달 월급을 물어보는 초등학생의 질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8500유로(약 1170만원)”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지역신문인 ‘미디리브르’ (Midi Libre)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마르세유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질문으로 알려졌다. 마크롱은 언론이나 시민들과 만날 때 미리 질문이나 답변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는 말에 한 10세 소녀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고 질문했다. 다른 학생들도 궁금하다는 듯 그의 답에 귀를 기울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약 1만3500유로(약 1850만 원)를 지급받는다”면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8500유로(약 1170만 원)”라고 했다. 프랑스는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탓에 마크롱의 월 공제 액수만 5000유로(약 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금액이다. 그는 2014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성과급 등을 합쳐 세전 240만 유로(약 33억 원)를 벌었다고 신고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새끼 호랑이 5남매 이름 지어주세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최근 태어난 한국호랑이 5남매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에버랜드에서는 지난달 27일 야생동물보호협약(CITES)에 멸종위기종으로 속한 한국호랑이 5마리(수컷 2마리와 암컷 3마리)가 자연번식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오는 8일까지 에버랜드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서 새끼 호랑이 이름과 의미를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기시판

인천공항공사 첫 여성 상임이사 이희정 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자 이사·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에서 이희정 현 미래사업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상임이사에 여성이 선임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입사한 이 상임이사는 인사, 감사, 해외사업, 홍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1월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사 본부장(1급) 이상 임원에 임명됐다. 이후 6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사업을 수주하고, 인천공항 MRO(항공정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신수종 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배윤순 씨 별세, 이철근(전 프로축구 전북 현대 단장) 씨 장모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3010-2000

▲이분자 씨 별세, 박우용·우생·우영(교교 교사)·우진(문경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씨 모친상 = 6일, 대전 나진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42-520-6690

▲박순이 씨 별세, 정진기·진호·진학·옥년(가톨릭대 교수) 씨 모친상, 이영덕(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씨 장모상 = 6일, 부산영락공원장례식장 4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40분, 051-790-5000

▲이재권 씨 별세, 이영수(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코치) 씨 부친상 =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31-218-6560

표 생화학분자생물학연맹 회장 김준 교수

김준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지난 1일 개최된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연맹(FAOBMB)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교수는 내년 1월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재민 기자 jmi@

288g으로 태어난 ‘전우의 기적’, 5개월 만에 건강하게 퇴원

‘자궁 내 성장지연’ 진단 미숙아 24주 6일 만에 제왕절개 출산 신생아 중환자실서 집중 치료 체중 2kg으로 ‘엄마아빠 품에’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24주 6일 만에 체중 288g, 키 23.5cm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난 조건우(5개월/남) 아기가 153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치고 3일 퇴원했다고 6일 밝혔다.

400g 이하 체중의 초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200g대로 태어난 조건우는 국내에서 보고된 초미숙아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됐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미숙아 등록 사이트(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에는 현재 286명의 미숙아가 등록돼 있는데, 조건우는 전 세계에서 32번째로 가장 작은 아기로 등재된다.

조건우는 결혼 6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첫아기였다. ‘엄마 키 174cm, 아빠 키



태어난 지 4일째 된 조건우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왼쪽) 조건우가 퇴원하는 날 조건우와 아빠, 엄마, 주치의 김애란 신생아과 교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서울아산병원

191cm인 장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얼마나 클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건강히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중 임신 17주차 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잘 자라지 않는 ‘자궁 내 성장지연’이 심해 가량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월 말 경남 함안에서부터 서울아산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당시 태아는 원래 임신 주수보다 5주 가량 성장이 뒤쳐질 정도로 작은 상태였다.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는 아이를 살



리고 싶다는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태아가 버텨주는 주수를 최대한 늘려보기로 하고 입원을 결정했다. 엄마는 4월 1일 서울아산병원 고위험산모 집중관찰실로 입원한 후 태아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와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받았다. 이후 태아가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4월 4일 응급 제왕절개로 조건우를 출산했다.

예정일보다 15주, 약 4개월 정도 앞선 24주 6일 만에 세상에 나온 조건우는 스스로 호흡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관지 내로 폐 표면활성제를 투여받은 건

우는 다행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 길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신생아팀의 집중치료를 들어갔다.

조건우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부모님도 끝없이 헌신했다. 조건우 부모님은 아이에 모유를 전달하기 위해 다섯 달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남 함안에서 서울아산병원까지 왕복 700km 이상 최대 1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갔다.

조건우는 생후 80일째 인공호흡기를 떼고 적은 양의 산소만으로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해졌다. 체중도 288g에서 1kg을 돌파했다. 생후 4개월 중반에는 인큐베이터를 벗어났고 생후 5개월에 다다랐을 때는 체중이 2kg을 넘어섰다.

조건우 엄마 이서은(38) 씨는 “조건우는 우리 부부에게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로 어떤 위기에서도 꼭 지켜내고 싶었다”며 “의료진 덕분에 건강한 조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조건우가 가장 작게 태어났지만, 앞으로는 가장 건강하고 마음까지도 큰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청년경쟁정책과장 정영진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박용철 △체육국 체육협력관 강대금 ◇과장급 전보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 오진숙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장 김석일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장 진재영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미라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장 윤태욱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건설산업예방법정책과장 박상원
-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청년정책과장 최치연
- ◆관세청 ◇과장급 전보 △보세산업지원과장 이광우 △인천세관 공항통관과장 김재현 △부산세관 통관과장 김재식 △목포세관장 성용욱

-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진 △운영본부장 전형욱 △건설사업단장 주권 ◇보직 △감사실장 김한선
- ◆한국예탁결제원 ◇보임 △정보보호부장 최항진 △인사부 인사팀장 김현석 △의결권서비스부 전자투표팀장 이은별 △편드서비스부 펀드회계팀장 조정현 ◇전보 △IT서비스1부장 이청우 △IT인프라운영부장 김상근 △혁신기업지원부장 김정민 △증권담보부장 김재웅 △자산운용지원부장 정운근 △사회적가치추진단 일자리·사회적가치추진팀장 문진혁 △의결권서비스부 의결권기획팀장 김경덕 △재무회계부 업무자금팀장 장명수 △인사부 선임비서역 이동성 △혁신기업지원부 클라우드펀딩지원팀장 오종욱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총괄팀장 신성철 △채권등록부 채권관리팀장 조덕우 △증권예탁부 증권예탁팀장 윤택수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장 이용준 △총무부 일산센터이전추진반

- 장 임창균 △재무회계부 자금운용팀장 김수정 △증권대차부 채권대차팀장 성호진 △안전기획팀장 채양기 △인사부 노사협력팀장 라지숙 △홍보부 홍보1팀장 윤순옥 △비상계획관실 수석안전관리역 류병국
- ◆IBK연금보험 ◇임원 승진 △전무 조해성(개인연금본부장)
- ◆DB김준기문화재단 △사장 김동성
- ◆녹색경제신문 △금융부장 겸 콘텐츠 에디터 조동석
- ◆UPI뉴스 △부사장 겸 대기자 김당 △편집인 겸 편집국장 류순열
- ◆스트레이트뉴스 △공동대표 겸 편집국장 신홍범 △생활경제팀장 장영일
- ◆뉴스프리존 △강원본부장 김영기

부음

▲고종권(한양대 교수·한국회계학회장) 씨 별세, 김선주 씨 남편상, 고건희 씨

시론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부분지준금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 제도에서 중앙은행은 보통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분원통화를 공급하며, 상업은행이 창조한 신용화폐는 화폐인 동시에 민간부채이다.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려면 통화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동시에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돈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 보면 오늘날의 돈은 대부분 일반은행이 창조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교과서가 가르치듯이 오늘날의 상업은행은 부분지준비금제도에 따라 운영된다. 일반은행은 예금의 일정액을 지준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할 수 있다. 은행이 애초에 예금으로 1억 원을 확보했고 지준율이 5%라면 19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의 예금 1억 원만이 아니라 19억 원의 대출까지 합쳐 총 20억 원이 수표나 현금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엄연한 돈이 된다. 이처럼 통화량 20억 원 중에서 19억 원이 은행이 무에서 창조한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화폐제도는 나라가 돈을 창조하는 법정화폐 체제가 아니라 상업은행화폐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체제를 뒷받침하는 은행의 부분지준금제도는 자본주의의 여명기에 탄생하여 산업혁명의 자금을 제공한 혁신적 제도이다. 저축된 돈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창조하여 많은 잠재성 있는 사업에 풍부하게 자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산업혁

은행의 완전지준금제 검토하자

명과 이후 자본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빅셀, 하이테크, 피셔 등 많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부분지준금제도는 경기순환의 주된 원인이다. 왜냐하면 화폐가 대부분 대출에 의해서 창조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 통화량 21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화폐인 동시에 민간부채이다. 이 제도에서는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활성화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가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는 수요의 제약 때문에 대출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대출을 뒤늦게 받은 기업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며 은행은 곤경에 처한다. 그러면 경제 내의 통화량은 대출이 늘어난 때와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급격히 축소되고 경제는 디플레이션 위기로 치닫게 된다. 결국 부분지준금제도에 의해 통화 공급되는 경제에서 경기 활황은 부채의 부담 때문에 위기를 맞이할 운명을 타고난 것과 같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을 1920년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확장적 신용정책에서 찾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상업은행의 무분별한 신용확대가 원인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대공황 이후 나이트, 사이먼즈, 프리드먼 등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시카고플랜'이란 이름으로 부분지준금제도를 완전지준금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한동안 잊혔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여 세계 경제학계의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완전지준금제도는 은행이 예금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은행의 신용창조를 금지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부분지준금제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뜻밖의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더욱욱 의외이다. 하지만 부분지준금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 제도에서 중앙은행은 보통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분원통화를 공급하

며, 상업은행이 창조한 신용화폐는 화폐인 동시에 민간부채이다.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려면 통화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동시에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높은 부채 수준으로 긴축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강력한 흐름이 있다. 그런데 현 제도에서 부채 감축은 통화량 감축을 의미한다. 결국 현 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부채를 줄이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논리적인 방법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화폐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분지준금제도의 제한과 정부에 의한 화폐 발행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학계는 이 논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모든 사회제도는 진화한다. 화폐 및 은행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보다 열린 시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정책발언대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질서 뒤집는 첨단기술 동맹

"K방역에 성공한 한국이 왜 백신이 부족하죠?"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한미 백신 스와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나에게 되물었다. 면담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생각해 잠겼다.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이 왜 반도체가 부족하지요?' 같은 질문,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왜 인공지능이 뒤처지나요?'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첨단기술'이라는 키워드는 숙제처럼 이어졌다. 며칠 후 열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새로웠다. 한미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 외에도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5G·6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자 글로벌 기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연 첨단 기술동맹으로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내외신을 매일 장식하는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은 국제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관건은 우리의 선택이다. 글로벌 시각으로 국익 우선의 옳은 선택을 하느냐, 우물안 개구리처럼 소탐대실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신뢰회복과 관계 정상화라는 첫 단추를 먼저 끼워야 한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확고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만 강력한 '첨단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9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았다. 한 달 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과학자 3000명을 소집해 강한 위기감으로 사상적 준비와 작업 준비에 나서라며 맞섰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에 펼쳐 나가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굴기를 권위주의 기술의 부상이자 견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디지털 동맹과 기술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2022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의 최고급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조항 속 한국, 인도, 독일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법이 통과되면 정보력을 통한 안보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의회, 기업, 민간 모든 차원에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재정립해서 실리적 공

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냉철하게 보며, 현실 감각에 기반한 당당한 주권 외교를 펼쳐야 한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맞서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에 한국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우리의 기술이 중국에 반드시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5G 경쟁에서 미국을 앞섰고, 기축통화 달러화에 구속받지 않기 위해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 추진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금융상품 거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의 파고(波高)를 넘기 위해서는 한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대국 간의 기술혁신, 기술동맹 경쟁 속에서 선택과 편승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민주주의 기술동맹의 중심에 서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포여 죄르지 명언
"수확은 지극히 빠른 사실을 전혀 뻔하지 않게 증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수학자. 조합학, 숫자 이론, 수치 분석과 확률 이론에 크게 기여한 그는 학생, 교사 및 연구자를 위해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파악했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887~1985.
☆ 고사성어 / 중족측목(重足側目)
'발을 겹쳐 모으고 곁눈질을 한다'라는 말이다. 남의 위세에 놀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유한다. 사기(史記)가 원전. 한(漢)나라 급양(汲黯)이 흑리(酷吏) 장탕(張湯)이 법률을 제멋대로 개정한 데 대해 꾸짖는 말. "천하에 도필리(刀筆吏, 아전들을 앞잡아 부르는 호칭)라는 것들을 공경(公卿)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그대가 꼭 그러하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 발을 모아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곁눈질하게 하고 있다[令天下重足而立 側目而視矣]." 출전 사기(史記) 급정열전(汲黯列傳).

기자수첩



서지연 금융부/sjy@

금감원, '칼을 쥐' 독립 원한다면

고 '개인'을 두둔하기에만 급급하다. 여전히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 피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잣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금융당국의 역할임을 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서 민감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융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불법행위는 날로 교묘해진다.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위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인력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할 명분도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더 엄격해

야 한다. 이번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을 접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제재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로남불'식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혹시 있을 일을 대비해 경계하고 또 경계하자는 게 금감원이 주장하는 내부통제 강화가 아니던가. 금감원이 외치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직원 개개인 모두에게 요구된다. 금융사 직원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춰야 그 역할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독립을 원한다면 금감원 스스로가 자격을 갖췄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금감원의 칼날은 밖으로만 내두르라고 쥐여 준 무기가 아니다.

☆ 시사상식 /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이나 애플은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간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속담 /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식물에 가장 좋은 거름은 농부의 발걸음'이라는 말처럼 매일 농부가 키우는 농작물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감독 집행을 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감독·검사 권한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 검사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칼을 휘두른다'는 표현을 쓴다. 금융권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쥐는 칼은 금융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서 있다. CEO에게도 예외는 없다. 최근 금감원 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 비리가 또 한 번 불거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관마다 그런 시도는 많다", "실수다"라

게으른 장인들의 '개소리'

"개소리쟁이들이 또한 무언가를 들키지 않고 교묘히 처리하려고 든다는 점은 여전하다. 개소리쟁이의 작업에는 분명 게으른 장인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부정확함이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규율의 요구에 저항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

프린스턴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저명한 도덕철학자인 해리 G. 프랭크푸르트의 책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의 내용 일부다.

'올해 신생아 18세 되면 나라 빚 1억 부담', '올해 태어난 아이, 18세 되면 나라 빚 1억 원 짊어진다', 심지어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중략) 1억 폭탄'까지. 지난 한주 언론사 경제면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 제목들이다. 이 기사들만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망할 것 같다.

자료 출처를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환경연)이다. 환경연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부터 '올해 신생아 국가채무 부담액 18세 1억 돌파, 32세 3억 돌파'다. 환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과연 그럴까? 일단 환경연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아닌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했다. 결국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를 소위 뺑뺑기한 것이다.

국가채무 중엔 사실상 상황에 문제가 없는 금융성채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다. 금융성채무란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외화자산

데스크칼럼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을 말한다. 즉,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나 채권이 있어 이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체 상황이 가능한 채무다. 금융성채무는 2020년 기준 국가채무의 40% (39.4%) 수준을 기록 중이다. 경제연구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모를 리 없을 터다.

국가가 빚을 내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 중 외국인 투자비중은 2020년 기준 16.7%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빚인 국채는 대부분 국민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연 논리대로라면 아빠가 엄마한테 진 빚을 아들과 딸이 엄마한테 갚아야 한다.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손 치더라도 아들과 딸이 아빠한테 받을 채권은 왜 계산에 넣지 않는가.

환경연은 또 국가채무가 2019년 723조 원, 2020년 847조 원을 기록 중이며, 올해 96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인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7.7%에서 44.0%에 이어 47.2%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수치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9.2%에서 2020년 44.7%로 5.5%포인트 늘었다. 이는 국제비교가 가

능한 28개국 중 증가폭 기준 23위에 그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29.1%p), 일본(+21.9%p), 독일(+11.7%p)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30.6%p), 이탈리아(+28.3%p), 호주(+18.7%p), 터키(+7.4%p)와 견줘서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특수성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되레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맨 정부 덕(?)에 가계 고충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말 GDP 대비 가계부채는 전년말보다 8.6%포인트 늘어난 103.8%를 기록했다. 비교 가능한 43개국 중 5번째로 크게 증가한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가계빚이 경제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급모시기 운동 등을 통해 가계가 또 다른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을 도운 바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등 가계를 중심으로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타령만 하는 게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최근엔 현대화페이론(MMT)이 주목을 받고 있다. MMT는 정부 재정을 일반 가정이 가계부를 쓰듯 운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연을 비롯한 기존 전통경제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 정부, 언론도 사고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무언가 들키지 않고 교묘히 처리하려는 게으른 장인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kimnh21c@

사설

'위드 코로나' 실험, 아슬아슬한 백신이 관건

코로나19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4주 더 연장됐다. 다만 6일부터 일부 완화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부터 10시로 연장됐고,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다. 3단계 지역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8명까지 모임 수 있다. 추석연휴 전후 1주일(9월 17~23일) 동안은 4단계 지역도 접종완료자를 더한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최고단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접종완료자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방역을 완화해 코로나와 공존(共存)을 모색하는 '위드(with) 코로나'의 시도다. 무한정 국민들의 일상을 틀어막고,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계속 키울 수 없다. 끝없는 거리두기 강화로도 코로나 확산이 잡히지 않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백신 접종인구가 늘고 있어도 국내 신규 확진자는 6일(0시 기준) 1375명(누적 26만1778명) 증가했다. 전날(1490명)보다 115명 줄었지만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인 게 아니다. 대개 주 중반에 확진자가 급증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7월 7일(1211명)부터 62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입국에서 '뮤 변이'까지 발견됐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바이러스로, 국내 유행으로 번질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대규모 인구가동이 이뤄지는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다. 코로나 확산세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체계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필요하며 위드 코로나 쪽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확산세가 멈춰지는 것이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충분히 높이고 치명률을 낮추면서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돼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 90%, 일반 성인 80% 이상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아직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58.4%인 3000만5459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는 34.6%인 1775만 1820명에 그친다. 이런 수준으로 위드 코로나를 말하기에는 성급하다.

백신 보급도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주력인 모더나 백신이 당초 약속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족한 물량이 언제 들어와 예정대로 접종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충분한 백신 공급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단시간 내에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대방로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정부는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방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윈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 일, 여가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고, 올해 3월 대전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향후 부산과 울산에도 사업 지역 조성을 검토 중이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시행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민간 주도의 벤처·혁신 공간과 공공 주도의 창업·성장 공간을 중심으로 2000여 개의 기업과 10만 명 이상의 인재들이 집적되는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자생적인 산업 융합 생태계를 갖춘 혁신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개발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광주는 신도심인 상무지구 일원에 삶과 일, 여가가 가능한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전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은 물론이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까지 연계한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와 삼성창조캠퍼스 일대를 연계하여 혁신선도공간, 혁신기업공간, 문화융합공간으로 특화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문화와 도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만든다는 방향을 잡았다. 대전은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 인프라와 문화·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지역에 창업공간 구역, 혁신혁신 구역, 성장엔진 구역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전형 뉴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각 지자체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집적과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방점을 뒀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혁신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면서 일터, 삶터, 놀이터, 배움터로서의 기능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

다. 미래형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주거여건을 강화하여 도심 생활문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 방지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 일정 규모 이상 도시로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대전환을 모색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 더 이상 쇠퇴형 도심이 아닌 성장형 도심으로 변모함으로써 혁신기업과 청년인재가 모이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지역이 재도약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허, 특!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주름살 치료 주사제로 알려진 '보톡스'는 특정 세균이 만드는 신경 독성단백질인 '보툴리눔 독소'의 상표명이다. 글로벌 기업인 앨러간(Allergan)이 다한증과 근육 축소를 통한 사각턱 치료제로 개발해 불인 상표인데 보통명칭처럼 사용된다. 관련 제품의 제작에 뛰어들어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를 생산하는 메디톡스와 '나보타'를 생산하는 대웅제약은 서로 치열한 기술유출 분쟁 중에 있기도 하다.

메디톡스는 퇴직 연구원이 세균을 분리·배양한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빼돌려서 대웅제약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으며, 제조공정은 알려진 기술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맞섰다. 노하우(Know-how) 등으로 불리는 영업비밀은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한다.

한국 기업끼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분쟁을 한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기술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있다. ITC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특허권 등 미국

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등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SK이노베이션에 무역금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서 ITC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영업비밀로 인정했고, 불법유출이 있다고 보아 대웅제약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2021년 7월에 취소되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처럼 대웅제약의 미국 수출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결과를 본 뒤인 8월에야 검찰이 대웅제약의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발견 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역위원회가 있고 수입뿐 아니라 수출까지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심은 적다. 한국이 아직 갖춰지 못한 증거개시제도가 원인일 수 있다.

문헌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K텔레콤, 'T우주'로 5천만 고객 사로잡는다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 11번가 구독 비즈니스 지각변동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해 고객들이 선호하는 구독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SKT는 8월 31일, Global 사업부에서 11번가 구독 상품부터 다양한 파트너사 상품까지 다양한 구독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VAT 포함)의 13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10GB를 기본 제공하며, 다양한 개별 구독 상품(원 상당) 중 맘에 있는 상품이다. 월의 민족 8천 원, 커피 최대 30% 할인, kukka 꽃다발, 양한 카터, 할 수 있는, 를 선택, 객 마음, 게 강, 점이다. 구독 상품 은 앞으, 월 4, 우주패스 mini 상품은 1, 무료 배송 및 11번가 멤버십을 기본 제공하며, 추가로 웨이, 서비스 또는, One 멤버십, 제공하는 상, 금액 대비, 될 수 있는 만, 비교해도 알, 용을 자, T 고객뿐 아, 인 누구나, 원 우주패, 000원 프로모션, 'small'으, 는 여러, 스타일 전, 다는 서비스의 지향점도 담고 있다. T우주'라는 브랜드 체계 하에 다양한 구독 파트너사(우주 파트너스)들과의 제휴를 통

해택은 Amazon, Amazon, m에서 판매, 환경 그대로 이, 에는 다양, '상품이 입, 무료 배송' 혜택이, 스 가입 프로모션으로, 전 없이, 단 1개의 상품만, 송을 받을 수 있고, 우주패스, 28,000원 이상 구매 시 무, 된다. 또한, 국내 고객이 자주 구매, 11번가 이상의 '특별 셀렉션' 상품을, 일하여 평균 4~6일 내 빠른 배송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일반 상품의 경우 영업일, 기준 평균 6~10일 소요) 가격 측면에서도, Amazon에서 진행되는 주요 딜 상품을 11, 번가에서 동일하게 쇼핑 가능하며, 동시, 에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 할, 인을 제공하는 '11번가 단독 딜' 상품도 제, 공된다. 고객들이 원하는 최대의 높였다, 11번가, 가입할 필요 없이, Amazon, 을 검색하면, 상, 품 장, 한글로 보, 번가 결제수, 그대, 있으며, 배송/선, 프, 을 직, 험하고 선택,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전국, 인 매장에 스마트 테이, 블, 구독 체, 용을 추가한 '구독 전문 매, 장'을 1천 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독 상품에 대해 카운슬링이 가능한 전문, 컨설턴트도 1천 명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 이다.

의, 제, 커머스/미디어 등 전략적 파트너는 물론 다양한 중소기업들과의 동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브랜드 및 구독 패키지, 서비스들은 8월 31일, 시된다. SKT 박, CEO는 "T우주'는 다양한 브랜, 고, 고객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독 유니버스를 지, 한다. 'T우주의 T'는 통신을, 해왔던 기존의 'T'에서 더 나아가, h, nology, Tomorrow, 그리고 누, 함께 할 수 있는 Together들의 의, 는 T로써 앞으로 지금까지 본격, 구독의 새로운 신세계(유니버, 펼쳐 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 는 수천만 개 이상의 아마, 성 고객을 식별, Amazon US) 판매 상품을 11, 에 기반한 최적의, 그리고 고객의, 을 고려한 적시 마케, 수, 을 높일 수 있, 과 차별화된 무료배송, 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준, 대해 지금, 없었던 혁신적인 해, 의 직구 서비, 이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마존, 을 저렴 구매, 할 수 있는 서비스는 11번가가 최초, 이며 유일하다. 11번가는 지난해 말, 부터 아마존의 특별한 쇼핑 경험을, 국내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 왔, 을 지향하며, '25년간, 는 정량, 으로 기대하고, payment, 인정받, 성장한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글로벌 새로운

손잡이만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구독 커머스 플랫폼'을 목표

SK텔레콤이 파트너스만 만드는 구독 유니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의 편, 아마존 미국 가격 기반으로 제, 시간 기준, 실시간 환율을 계산하, 노출하며, 아마존에서 진행되는 거, 인, 묶음 상품 할인, 프로모션 등이 모두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카테고리별 핫딜 상품부터 한정 특가 딜까지 아마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딜 상품을 11번가에서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고객에게 11번가에서만 특별 할인가에 판매하는 '11번가 단독 딜'을 진행한다. 해외 직구의 걸림돌로 꼽히던 배송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없었다. SK텔레콤이 새롭게 선보이는 구독 상품 '우주패스(Universe Pass, 월 4,900

과 더 빠른 배송을 경험, 향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는 고객, 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상품 검색, 부터 사, 보 입력, 길, 환경, 기존, 까, 에, 한, 데, 단, 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이용 고객들

기존 구독 서비스 이용의 경계를 허물고 통신사의 한계를 넘는 T우주, 의 스케일에 걸맞게 이번 캠페, 슬로건은 T우주의 이러한, 반영한 "모두의 구독, 그렇다면, 광고에, 의 현실감은 광고를 보, 야기하고 싶, 는 무엇이, 선을 끌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 용한다. 광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발, 사된 구독 제품들이 T우주로 수령되, 며 구독 박스를 일으키는 장면 역시, 문정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호, 기심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느껴진다. 특히, 2분 30초 길, 이의 T우주 문정편 풀 버전은 일방적, 으로 노출되던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찾아보는 광고로의 변화까지 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독 비즈니스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T우주